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8 | No. 143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1. 8 | No. 143

차 례

Ⅰ. 해외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제금융·유가 ········ 6
2. 주요국 산업 동향 ········ 7
   (1) 중국 ········ 7
   (2) 미국 ········ 11
   (3) 일본 ········ 12
   (4) 유로존 ········ 14

Ⅱ. 국내 실물경제

1. 국내 경기 ········ 16
2. 고용 ········ 18
3. 물가 ········ 19
4. 금융·외환 ········ 20
5. 수출입 ········ 22

Ⅲ.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 23
   (1) 총괄 ········ 23
   (2) 자동차 ········ 26
   (3) 조선 ········ 28
   (4) 일반기계 ········ 29
   (5) 철강 ········ 31
   (6) 정유 ········ 32
   (7) 석유화학 ········ 33

(8) 섬유 ···· 35
(9) 가전 ···· 36
(10) 무선통신기기 ···· 37
(11) 반도체 ···· 39
(12) 디스플레이 ···· 40

2. 서비스산업 ···· 41
(1) 생산 ···· 41
(2) 고용 ···· 44
(3) 서비스수지 ···· 47

Ⅳ. 지역별 동향

1. 개관 ···· 49
(1) 생산 ···· 49
(2) 고용 ···· 50
(3) 수출 ···· 52

2. 지역별 동향 ···· 53
(1) 수도권 ···· 53
(2) 충청권 ···· 55
(3) 호남권 ···· 57
(4) 대경권 ···· 59
(5) 동남권 ···· 60
(6) 강원·제주권 ···· 62

Ⅴ. 산업 포커스

1. 원자재인 후판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 64

2. 미·중 통상마찰이 국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69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8 | No.143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영수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이호문화사

I

해외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6월에도 생산 둔화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들의 부진세가 지속

-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개인소비(전기비 11.8%)와 설비투자(13.0%)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기준 6.5%(전년동기비 12.2%)

● 일본은 5월 중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하면서 실물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지고, 유로존에서도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부문 간 혼조세가 지속

- 일본은행(BOJ)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유지를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한 반면에, EU 집행위는 유로존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

● 중국은 6월 생산과 소비 등 주요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둔화세를 보인 반면에, 수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되면서 외수 호조세를 반영

-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18.3%)보다 현저히 낮은 7.9%를 기록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준율 인하(-0.5%포인트)를 단행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미국	실질GDP[1)]	2.3	-3.4	4.5	6.3	6.5				
	산업생산	-0.8	-7.2	2.0	0.9	1.4	2.7	0.0	0.7	0.4
	소매판매	3.3	0.3	0.4	8.0	6.2	11.3	0.9	-1.7	0.6
	무역수지[2)]	-576.3	-676.7	-196.8	-212.8	-215.8	-75.0	-69.1	-71.0	-75.7
일본	실질GDP	0.0	-4.7	2.8	-1.0	-				
	광공업생산	-2.7	-10.6	5.7	2.8	-	1.7	2.9	-6.5	-
	소매판매	0.1	-3.5	0.1	0.4	-	1.2	-4.6	-0.3	-
	무역수지[2)]	-1,668	563	1,959	542	-	658	249	-189	-
유로	실질GDP	1.4	-6.5	-0.6	-0.3	-				
	산업생산	-1.3	-8.4	4.3	1.1	-	0.5	0.6	-1.0	-
	소매판매	2.4	-1.0	-1.3	-1.5	-	4.0	-3.9	4.6	-
	무역수지[2)]	223.0	235.0	75.8	69.5	-	17.9	13.4	9.4	-
중국[3)]	실질GDP	6.0	2.3	6.5	18.3	7.9				
	산업생산	5.7	2.8	7.1	24.6	9.0	14.1	9.8	8.8	8.3
	소매판매	8.0	-3.9	4.6	34.0	14.1	34.2	17.7	12.4	12.1
	수출(달러화)	0.5	3.6	16.9	45.6	30.8	30.6	32.3	28.0	32.2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상승 및 유가 하락 전환

- 달러화는 지난 7월 연준의 FOMC 회의(27~28일)를 전후로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와 함께 동반 약세를 보이고, 8월 들어서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연준 관계자들의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
  - 달러화 지수는 8월 들어 7월 말 대비 1% 상승하면서 4개월여 만에 최고치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0일
엔/달러 달러/유로	104.31 1.1927	103.25 1.2216	104.68 1.2136	106.57 1.2075	110.72 1.1730	109.31 1.2020	109.58 1.2227	111.11 1.1858	109.72 1.1870	109.77 1.1834
미 국채 (10년 만기)	0.84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22	1.22
WTI유 두바이유	45.3 46.6	48.5 50.2	52.2 54.3	61.5 63.1	59.2 62.4	63.6 64.5	66.3 66.6	73.5 73.0	74.0 73.3	69.1 69.4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유가는 7월 중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 등으로 급락세를 보인 이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수요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8월 들어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

- WTI유는 7월 중 60달러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5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6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8.3%로 성장세 유지

● 6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8.3%로 상반기 평균에 비해 낮긴 하지만 성장세를 유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0.7%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8.7%

● 6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민영기업과 주식제기업은 높고 국유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4월	5월	6월
공업 전체		5.7	-1.3	2.8	15.9	9.8	8.8	8.3
섬유	방직	-5.9	-25.9	-15.7	11.8	9.0	6.9	8.1
	화학섬유	12.5	-1.0	3.4	17.1	11.6	8.4	6.1
화학	에틸렌	9.4	-0.8	4.9	26.6	19.0	23.7	31.1
	플라스틱원료	9.3	2.8	7.0	12.3	6.0	5.8	8.0
	플라스틱제품	3.9	-9.6	-6.4	18.2	9.5	7.1	6.1
철강	선철	5.3	2.2	4.3	4.0	3.8	-0.2	-2.7
	조강	8.3	1.4	5.2	11.8	13.4	6.6	1.5
	강재	9.8	2.7	7.7	13.9	12.5	7.9	3.0
비철금속		3.5	2.9	5.5	11.0	11.6	10.3	8.0
기계	금속절삭기계	-18.8	-7.7	5.9	45.6	37.2	31.8	29.5
	소형 트랙터	3.0	-29.7	-47.2	27.6	5.6	14.3	13.3
	대기오염방지설비	-13.7	-22.5	-21.1	25.6	4.1	-6.5	-23.6
	발전설비	-15.0	16.7	30.3	17.4	10.8	10.9	-18.8
자동차		-8.0	-16.5	-1.4	26.4	6.8	-4.0	-13.1
조선		9.3	-10.4	-8.2	19.1	-15.5	14.6	15.6
전자	세탁기	9.8	-7.2	3.9	33.5	34.2	12.1	13.0
	냉장고	8.1	-6.9	8.4	18.8	8.5	-4.2	-15.4
	에어컨	6.5	-16.4	-8.3	21.0	22.5	14.0	-12.1
	컬러TV	-2.9	-2.5	4.7	5.6	3.6	-3.2	-13.4
	컴퓨터	6.9	5.2	16.0	40.6	10.8	7.3	28.6
	반도체	7.2	16.4	16.2	48.1	29.4	37.6	43.9
	휴대폰	-6.0	-13.3	-9.5	21.1	13.5	16.9	2.9
서비스	화물운수	5.5	-7.8	-0.5	24.6	17.1	12.6	10.3
	여객운수	-1.9	-54.8	-45.1	11.1	40.7	15.1	-6.1
	우편[3]	31.5	22.4	29.7	34.4	25.5	20.0	22.9
	통신[3]	62.9	28.3	28.1	28.3	28.6	28.5	30.2
	소매업	7.9	-8.7	-2.3	20.6	15.1	10.9	11.2
	음식숙박업	9.4	-32.8	-16.6	48.6	46.4	26.6	20.2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5.4%
- 민영기업은 10.2%
- 주식제기업은 9.0%를 기록

● 6월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철강업종의 선철, 기계업종의 대기오염방지설비와 발전설비, 자동차 등과 전자업종에서 냉장고, 에어컨, 컬러TV에서 감소
- 섬유업종은 방직과 화학섬유가 전년동기비 각각 8.1% 및 6.1% 증가
- 화학업종은 에틸렌이 3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플라스틱원료와 플라스틱제품이 각각 8.0% 및 6.1% 증가
- 철강업종은 선철이 감소(-2.7%)하였으나 조강(1.5%), 강재(3.0%)는 낮은 증가세
- 비철금속은 8.0% 증가
- 기계업종은 금속절삭기계(29.5%)가 크게 증가하였고 소형 트랙터(13.3%)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기오염방지설비(-23.6%), 발전설비(-18.8%)는 크게 감소
- 자동차는 반도체부품의 부족으로 13.1%의 큰 폭 감소
- 조선업은 15.6%의 견고한 증가세 시현
- 전자업종은 냉장고(-15.4%), 컬러TV(-13.4%), 에어컨(-12.1%) 등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반도체(43.9%), 컴퓨터(28.6%), 세탁기(13.0%) 등은 높은 증가

● 6월 서비스업은 여객운수를 제외하고 비교적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
- 화물운수은 10.3% 증가하였으나 여객운수은 6.1% 감소
- 우편과 통신은 각각 22.9% 및 30.2%의 높은 증가
-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각각 11.2% 및 20.2%의 높은 증가

□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0.4로 4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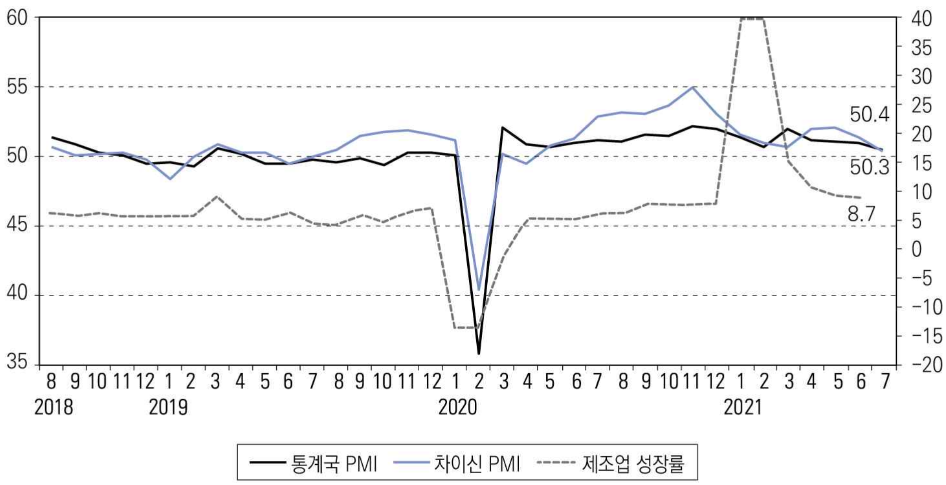
● 7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0.4로 4개월 연속 하락
- 생산지수는 0.9포인트 하락한 51.0으로 생산량은 증가세
- 신규주문지수는 0.6포인트 하락한 50.9로 시장수요 유지

- 부품재고지수는 0.3포인트 하락한 47.7로 재고 부족 반영
- 종업원지수는 0.4포인트 상승한 49.6으로 고용은 여전히 임계치 이하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1.0포인트 상승한 48.9로 원자재 공급은 지연

● 제조업 PMI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하락하여 임계점과 그 아래 위치
- 대형기업은 전월과 같은 51.7로 성장세 유지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한 50.0으로 임계점에 위치
- 소형기업은 1.3포인트 하락한 47.8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

● 7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최근 15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
- 중국 제조업에 대한 신규 수요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매출액이 최근 14개월 중에서 처음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해석
- 공장도 가격이 높아지면서 고객의 수요를 위축시켰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해외수요도 위축되기 때문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생산이 증가한 부문은 생산능력이 개선되고 시장여건이 안정된 부분에서 발생
- 생산량 추세에 따라 구매활동도 증가하였으나 소폭에 그치고, 부품 재고는 최근에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기존의 재고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해석
- 공급망 지연은 7월에도 지속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원재료 부족과 운송지연이 투입재의 조달을 지연시켰기 때문
- 고용수준은 7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
- 인플레이션 압력은 7월에 소폭 완화되었는데, 원재료 가격과 운송료가 상승하였으나 투입재 가격은 상승이 주춤해졌고, 완제품 가격은 소폭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
- 중국 제조업체의 향후 1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나,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진행 중인 공급망 붕괴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뢰도는 하락

(2) 미국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0.0% 증가

●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0.0% 증가하였지만, 4월(23.8%)과 5월(18.1%)에 비해 낮은 수준
- 2분기 생산은 전년동기비 17.0% 증가

● 1차 금속, 컴퓨터·주변기기, 항공우주, 정유 등의 생산은 호조세 지속
- 1차 금속은 전년동월비 31.7%의 높은 증가세 지속
- 컴퓨터·주변기기도 29.9% 증가를 기록하며 2분기 생산 호조세 지속
- 항공우주(25.5%), 정유(20.9%) 등은 전월 실적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20% 이상의 증가폭 유지

● 자동차·부품은 전년동월비 8.3% 증가하였지만, 4월(306.8%)과 5월(137.8%)의 실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6.4	-2.4	-0.2	17.0	3.6	23.8	18.1	10.0
식품	-2.6	-1.5	-0.5	7.4	1.1	12.2	7.9	2.6
제지	-4.3	-3.6	-5.8	2.6	-4.0	-0.7	5.1	3.7
정유	-13.0	-11.6	-7.4	23.8	1.5	26.9	23.8	20.9
화학	-2.6	0.0	-3.9	7.6	-4.8	6.3	8.1	8.3
플라스틱·고무	-7.6	-2.0	-0.7	19.2	2.6	27.6	21.2	10.2
1차 금속	-13.4	-6.3	-3.6	33.8	0.8	34.5	35.4	31.7
금속제품	-7.6	-5.8	-3.6	9.2	0.3	12.7	8.5	6.7
기계	-6.1	-0.4	3.2	23.0	5.3	30.3	23.2	16.4
컴퓨터·주변기기	14.1	19.7	15.3	29.4	14.6	26.2	32.0	29.9
통신기기	12.4	13.0	10.5	12.3	10.1	10.7	11.9	14.3
반도체·전자부품	3.7	5.8	10.7	14.9	11.8	15.2	16.3	13.4
자동차·부품	-15.7	2.4	4.8	87.1	28.7	306.8	137.8	8.3
항공우주	-20.1	-17.2	7.6	8.3	35.3	13.6	57.6	25.5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2.6%의 높은 증가세 지속

●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최대 증가치(22.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

- 2분기 전체로는 4월 이후 큰 폭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19.7% 증가

● 분야별 생산의 경우 수송기계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며, 강철·비철금속, 전자부품·기기, 기계 등도 호조 지속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10.3	-3.5	-1.1	19.7	3.3	15.8	21.1	22.6
강철·비철금속	-14.6	-4.3	-0.4	34.4	5.5	22.5	38.4	44.1
금속제품	-11.5	-6.0	-0.6	15.9	5.3	9.4	19.0	20.3
생산기계	-10.3	-1.3	11.3	25.0	20.6	23.3	24.6	27.0
일반용·업무용기계	-12.1	-3.5	-1.2	22.9	0.6	18.3	26.2	24.6
전자 부품·기기	1.4	5.2	9.7	23.8	10.2	15.9	26.9	29.1
전기·정보통신기기	-9.7	-0.6	5.1	21.4	5.7	19.6	23.2	21.7
수송기계	-17.4	-1.5	-7.1	54.5	1.7	52.8	63.4	50.2
요업·토석제품	-8.5	-4.7	-3.9	13.3	-1.1	7.6	14.8	18.2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2.5	-10.7	-5.4	9.2	0.5	3.5	11.3	13.8
석탄·석유제품	-15.5	-12.6	-11.4	0.9	-11.6	-2.5	3.6	2.1
플라스틱제품	-6.3	-1.0	-0.7	14.9	2.8	10.6	19.0	15.8
펄프·종이·가공품	-9.7	-5.8	-5.0	9.2	-4.0	2.2	12.2	14.5
식품·담배	-3.0	-3.6	-2.9	-33.3	-1.6	1.1	-1.3	-
기타 제조업	-13.2	-8.7	-5.3	14.8	-1.6	6.3	17.2	22.4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수송기계는 전년동월비 50.2%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 강철·비철금속도 44.1%의 높은 증가세 지속
- 전자부품·기기(29.1%), 생산기계(27.0%), 일반용·업무용기계(24.6%), 전기·정보통신기기(21.7%), 금속제품(20.3%) 등도 20% 이상의 큰 폭 증가

(4) 유로존[1)]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0.5% 증가

● 6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10.5% 증가

- 1차 금속은 1차 철강제조업(39.8%), 금속주조(24.9%), 철강가공(24.4%)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26.0%의 높은 증가
- 섬유는 17.7% 증가하였는데, 방적이 28.2%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섬유가공 및 섬유제직이 각각 22.1% 및 21.9% 증가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1/4	2/4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전체	-9.1	3.6	23.8	12.8	42.9	22.4	10.5
식음료	-2.4	-1.6	8.3	-0.5	7.5	10.7	6.8
섬유	-12.8	2.3	33.8	19.9	73.9	23.5	17.7
정유	-10.1	-8.4	6.8	-2.9	7.5	8.6	4.3
화학	-2.5	2.5	13.1	5.1	14.0	14.5	10.7
고무·플라스틱	-8.6	5.5	30.5	17.8	52.3	30.2	14.5
1차 금속	-13.1	3.9	35.6	16.0	50.2	33.3	26.0
조립금속	-12.0	6.2	32.7	21.3	61.6	29.0	15.7
기계	-12.7	4.1	24.3	16.1	48.8	21.3	10.0
통신기기	-14.2	9.7	27.5	24.5	54.6	36.5	6.2
전자부품	1.8	6.7	22.3	9.4	31.4	23.4	13.9
자동차	-23.8	-0.9	61.7	32.1	434.0	50.3	-3.4
조선	-8.1	6.4	23.6	27.5	83.6	10.4	0.9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조립금속은 금속처리 및 코팅(26.8%),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24.5%) 부문의 호조로 15.7% 증가
- 자동차의 경우 차체 및 트레일러(20.3%), 부품(17.1%)이 증가하였으나, 완성차(-16.4%)의 부진으로 인해 3.4% 감소

● 2분기 생산은 전 분야에 걸쳐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자동차(61.7%), 1차 금속(35.6%)과 조립금속(32.7%)이 큰 폭 증가

Ⅱ

국내 실물경제

01 국내 경기

□ 2분기 실질GDP 민간소비의 큰 폭 개선으로 0.7% 성장

● 올 2분기 실질GDP는 건설투자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증가폭 확대로 전기비 0.7% 성장

- 민간소비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분기보다 3.5%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면서 0.6% 증가한 반면에,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0.6% 감소

● 6월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전월비 1.6%)과 광공업(2.2%)이 동반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월비 1.6% 증가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월비 8.6%)와 자동차(6.4%)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2.2%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3.2%)과 도소매(1.6%) 등이 동반 증가한 영향에 힘입어 1.6% 증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0%)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5.8%)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1.0%)가 동반 증가한 영향으로 1.4% 증가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1.5%)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0.2% 감소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15.4%) 공사 실적이 증가한 영향으로 2.0%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2.2	-0.9*	-1.1* (1.1*)	1.9* (1.7*)	5.9** (0.7**)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6.6* (-1.3*)	1.2* (1.2*)	3.6** (3.5**)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6.1* (-0.6*)	12.4* (6.1*)	12.2**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2.9* (3.5*)	-1.8* (1.3*)	-1.5** (-2.5**)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1.5 (1.6)	2.7 (1.7)	7.3* (0.4*)	5.8 (0.9)	8.5 (-1.3)	7.0* (0.0*)	6.7* (1.6*)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0 (2.9)	4.4 (3.4)	13.0* (-1.0*)	4.6 (-0.7)	12.2 (-1.9)	14.9* (-1.0*)	11.9* (2.2*)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1 (3.1)	4.4 (3.4)	13.4* (-1.1*)	4.7 (-0.8)	12.8 (-1.9)	15.3* (-1.2*)	12.1* (2.3*)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0 (0.9)	2.2 (0.7)	5.7* (1.7*)	7.8 (1.3)	8.3 (0.2)	4.2* (-0.4*)	4.9* (1.6*)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2 (0.9)	6.4 (1.7)	4.4* (2.7*)	11.1 (2.5)	8.7 (2.1)	3.1* (-1.8*)	1.6* (1.4*)
설비투자지수	-5.7	6.0	2.8 (0.8)	11.9 (6.9)	12.4* (0.4*)	9.6 (0.1)	16.4 (3.1)	10.9* (-2.9*)	10.0* (-0.2*)
건설기성액	-2.3	-4.1	-5.3 (2.5)	-7.2 (-3.6)	-4.4* (-1.6*)	-5.6 (0.4)	-3.6 (-2.6)	-6.9* (-3.0*)	-3.1* (2.0*)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2.0 100.1	112.3 98.7	113.6 99.4	114.4 99.8	116.6* 101.3*	115.1 100.2	116.4* 101.2*	116.7* 101.4*	116.9* 101.4*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4.6 99.5	119.5 100.5	122.5 101.9	124.7 102.9	127.1* 104.1*	125.3 103.2	126.3* 103.7*	127.2* 104.1*	127.9* 104.4*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6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2% 증가

● 6월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제조업에서 감소로 전환되었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며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3% → 2.2%)

- 제조업은 3개월 만에 소폭 감소로 전환(0.4% → -0.2%)
- 농림·어업은 4개월 만에 증가(-0.2% → 1.0%)하였고, SOC·기타서비스는 2개월 연속 증가폭 둔화(2.9% → 2.7%)
- 건설업은 증가폭이 약간 확대(6.6% → 7.0%)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은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2.3% → -2.7%)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산업	27,123	26,904	26.952	26,369	27,467	26,365	26,923	27,214	27,550	27,637
전년동기비	1.1	-0.8	-1.6	-1.4	2.3	-1.8	1.2	2.5	2.3	2.2
농림·어업	4.1	3.6	2.4	-0.2	0.2	2.7	-1.8	-0.2	-0.2	1.0
제조업	-1.8	-1.2	-2.4	-0.6	0.1	-0.6	-0.3	0.2	0.4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1.7	2.9	-2.3	1.7	3.1	2.9	2.7
건설업	-0.7	-0.2	2.2	1.7	7.0	1.4	4.7	7.3	6.6	7.0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7.0	-6.9	-2.4	-7.3	-3.5	-2.2	-2.3	-2.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3	1.8	5.2	0.7	3.9	5.5	4.4	5.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5	0.9	0.2	-0.4	4.3	-1.0	3.3	4.5	4.6	3.9
실업률(계절조정, %)	3.8	4.0	4.3	4.4	3.7	4.0	3.9	3.7	3.8	3.7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5.0% → 7.6 %)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 → 7.9%)의 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0.3% → 8.7%)와 교육서비스(2.3% → 1.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7.7% → 6.1%)의 증가폭 둔화로 증가세가 둔화(4.6% → 3.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7%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

03 물가

□ 7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2.6% 상승

● 7월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연료(전월비 -1.3%)에서 비교적 큰 폭 하락한 영향에도 오락·문화(1.9%), 교통(1.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5%)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2.6%)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상승률,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0.4	0.5	0.4 (0.1)	1.1 (1.2)	2.5 (0.5)	1.1 (0.5)	1.5 (0.1)	2.3 (0.2)	2.6 (0.1)	2.4 (-0.1)	2.6 (0.2)
근원물가	0.9	0.7	0.7 (0.0)	0.9 (0.6)	1.4 (0.6)	0.8 (0.1)	1.0 (0.1)	1.4 (0.3)	1.5 (0.3)	1.5 (0.1)	1.7 (0.1)

자료: 통계청.
주: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가계대출 확대 전환, 8월 초(8.2~8.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6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더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폭이 더 축소(2021.5월 +5조 7,000억 원 → 6월 +5조 1,000억 원, 대기업 -1조 1,000억 원, 중소기업 +6조 1,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 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의 요인으로 전월에 이어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었고,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분기 말 일시상환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비 증가폭이 축소
- CP는 전전월과 달리 소폭의 순발행 기조로 전환되었고, 회사채 역시 투자수요 확대와 일부 대기업의 발행 재개 등으로 순발행 전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일부 기업들의 유상증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19		2020		2021				2021. 6월 말 잔액
	1~6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은행 원화대출	27.8	2.1	77.7	1.5	45.8	11.4	5.7	5.1	1,022.1
(대기업)	0.8	-2.2	24.2	-3.4	1.3	2.0	-0.8	-1.1	173.1
(중소기업)	27.0	4.3	53.5	4.9	44.4	9.5	6.5	6.1	849.0
〈개인사업자〉	11.4	1.7	28.7	2.6	19.4	3.8	2.3	3.2	405.4
회사채순발행	9.4	2.4	10.7	4.4	13.6	3.2	-0.2	2.8	..
CP 순발행	2.6	-2.4	4.2	-2.6	7.5	2.3	-1.1	0.6	30.4
주식발행	3.0	0.4	2.4	1.5	14.7	0.2	3.2	2.4	..
은행 가계대출	21.3	5.4	40.6	8.2	41.6	16.2	-1.6	6.3	1,030.4
주택담보대출	18.5	4.0	32.2	5.1	30.4	4.2	4.0	5.0	752.2
기타 대출	2.9	1.5	8.4	3.1	11.3	11.8	-5.5	1.3	277.3

자료: 한국은행.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1/4	2/4	3/4	4/4	1/4	2/4	7월	8.10일
국고채(3년)	1.07	0.84	0.85	0.98	1.13	1.45	1.42	1.43
회사채(3년, AA-)	2.08	2.25	2.19	2.21	2.06	1.97	1.85	1.86
CD(91일)	1.10	0.79	0.63	0.66	0.75	0.68	0.70	0.71
CP(91일)	2.20	1.51	1.11	1.09	1.00	0.97	0.97	0.97
원/달러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0.3	1,149.8
원/100엔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48.5	1,037.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 6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전월과 달리 증가로 전환(2021.5월 -1조 6,000억 원 → 6월 +6조 3,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고, 집단대출 취급에 따른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고, 기타대출은 주택거래 및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증가로 전환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준금리 인상 우려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8.2일 1.44% → 8.10일 1.43%, 0.01%포인트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월초 연중 최고치인 1,155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며 낙폭을 회복(8.2일 1,150.9원 → 8.10일 1,149.8원, 1.1원 하락)

05 수출입

□ 7월 무역수지 흑자, 전월보다 크게 줄어든 18억 달러 기록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 수입은 38.2% 증가한 53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성장 품목들도 수출이 급증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역사상 최고 월간 수출액 기록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 산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국내 경기 회복으로 중간재와 소비재를 비롯해 자본재 수입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38.2% 증가율을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4.0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91.6% 상승하고, 도입물량은 9.8%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 기준 72.7%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19 (4.1)	1,464 (12.5)	1,568 (42.1)	537 (16.4)	512 (41.2)	508 (45.6)	548 (39.8)	554 (29.6)
수입	5,033 (-6.0)	4,676 (-7.1)	1,237 (-1.7)	1,362 (12.1)	1,490 (37.4)	496 (18.7)	508 (33.9)	478 (37.9)	504 (40.7)	537 (38.2)
무역수지	389	452	182	102	78	41	4	29	45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2) 7월 실적은 잠정치.

Ⅲ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2.1%, 전월비 2.3%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기기(-52.9%), 기타운송장비(-12.2%), 전자부품(-5.9%)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반도체(25.5%), 자동차(23.5%), 기계장비(15.9%)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12.1%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5.6%)와 중공업(13.8%), 경공업(4.9%) 모두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통신·방송장비(-8.9%), 기타운송장비(-5.3%), 의료정밀광학(-4.8%) 등의 업종이 줄어들었지만, 반도체(8.6%), 자동차(6.4%), 전기장비(4.9%)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2.3%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은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 1.4%, 전월비 0.1% 증가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1.8%로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하였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의 증가폭(5.9% → 11.8%,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은 확대되었고,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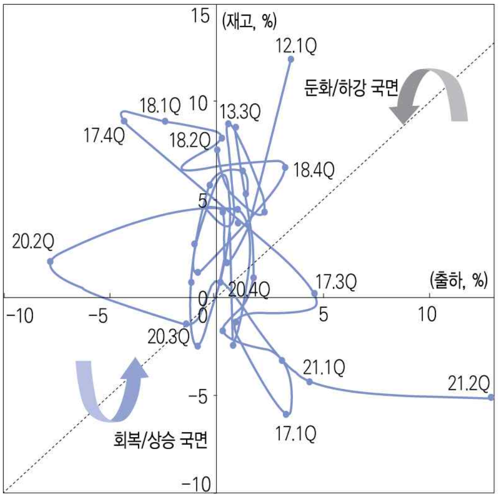
	가중치 (2019)	2019	2020	2021					
				1/4	2/4*	4월	5월*	6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6.7	106.3	109.8	114.0	114.0	111.2	116.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4.4	13.0	12.2	14.9	11.9	2.2
제조업(원지수)	9,484.5	106.6	106.3	109.1	114.6	114.6	111.8	117.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4.4	13.4	12.8	15.3	12.1	2.3
섬유	135.0	-5.9	-10.5	-4.5	24.5	25.2	28.6	20.1	4.0
화학	883.8	-1.3	-3.0	2.8	15.7	12.4	18.7	16.2	1.2
철강	454.3	-2.2	-6.3	-1.9	13.3	5.9	14.2	20.8	2.4
반도체	1,285.6	11.7	22.7	21.9	27.2	29.7	26.8	25.5	8.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3.2	9.2	1.8	17.2	10.2	-2.0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8.7	41.7	52.5	53.3	21.5	-8.9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17.0	32.5	32.4	40.1	26.0	-4.8
기계, 장비	819.2	-5.9	3.6	9.4	17.5	17.6	19.3	15.9	1.1
자동차	981.6	-0.5	-10.0	11.2	24.5	20.0	31.5	23.5	6.4
조선	206.3	17.6	8.6	-15.6	-17.3	-13.8	-15.8	-21.9	-4.1
중공업	-	0.6	0.6	5.5	14.7	13.7	16.7	13.8	2.8
경공업	-	-0.6	-4.0	-0.3	7.5	9.0	8.8	4.9	0.6
제조업ICT	-	4.8	11.9	14.0	19.7	22.5	21.6	15.6	3.1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재고의 감소폭(-3.9% → -5.2%)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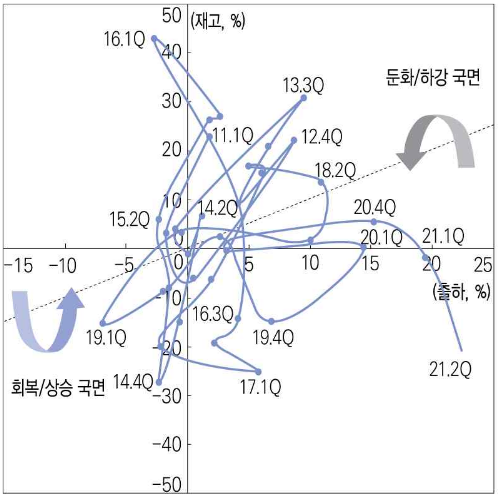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9%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2021년 2분기)



자료: 통계청.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2021년 2분기)



자료: 통계청.

□ 13개 주력 품목 수출 동반 증가, 11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

- 품목별로는 13개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동반 증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역사상 최고 월간 수출액 기록
  - 반도체는 신규 CPU 출시 및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메모리 주문이 확대되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일반기계는 IT기기 생산에 필요한 광학기기 수출 호조세와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 효과로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자동차는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단가 강세와 유가 상승으로 중동지역의 소비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면서, 철강은 철강재 수출단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한편, 선박은 해운시황이 살아나면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7월에는 선가가 높은 LNG선이 다수 통관 진행되면서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자동차	5.3	-13.1	1.1	31.5	74.8	15.3	73.4	93.7	62.5	12.3
자동차부품	-2.5	-17.3	3.8	5.6	123.3	12.5	99.9	182.3	108.2	35.0
선박류	-5.3	-2.0	32.1	28.2	11.9	62.8	14.4	-14.9	41.2	9.2
일반기계	-1.9	-8.8	-5.1	-1.4	21.3	6.1	17.0	25.7	21.4	18.3
철강	-8.6	-14.4	-6.5	7.6	50.7	12.9	38.9	62.9	51.7	41.5
석유화학	-14.8	-16.4	-7.7	26.8	81.1	48.0	82.8	94.3	68.4	59.4
석유제품	-12.2	-40.6	-44.7	-16.5	110.6	19.3	99.7	168.4	80.1	73.0
섬유	-8.0	-13.3	-6.5	-8.4	46.2	9.0	46.5	57.1	36.9	17.5
가전	-3.6	0.5	18.9	15.7	66.4	17.9	69.3	89.3	47.5	29.7
무선통신기기	-17.6	-6.4	11.8	21.6	38.6	5.8	79.8	41.4	3.4	4.9
컴퓨터	-20.6	57.2	8.5	2.8	8.9	6.9	1.6	7.5	16.5	26.5
반도체	-25.9	5.6	18.7	14.0	29.7	8.6	30.2	24.5	34.4	39.6
디스플레이	-17.0	-12.3	17.8	16.3	36.1	-1.1	43.5	38.6	28.2	38.0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7월 실적은 잠정치.

(2) 자동차

□ 내수 판매 부진 속 수출 증가세 지속

● 7월 내수는 국산차 판매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비 10.1% 감소

- 국산차 내수는 일부 공장의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14.6% 감소하였으며 전월비도 8.5% 감소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비 23.3% 증가하였으나,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월비 6.9% 감소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0.5	-10.0	-2.9	11.2	24.5	20.0	31.5	23.5	-
	생산(전기비)	-	-	-1.0	4.8	-5.1	-1.0	-7.0	6.4	-
	출하	0.4	-9.6	-2.2	11.5	25.3	27.8	31.9	17.9	-
	재고	2.1	9.2	9.2	2.5	3.1	-4.3	-3.5	3.1	-
	가동률	3.6	-9.1	-3.5	9.1	18.9	15.5	24.4	17.8	-
	내수판매동향	-1.6	5.7	0.2	11.2	-12.9	-4.0	-12.3	-20.8	-10.1
교역동향	수출	2.4	-14.5	2.0	21.7	88.4	81.4	117.0	75.0	18.8
	수입	-1.1	7.3	21.1	22.5	37.2	17.1	49.1	50.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8%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완성차는 EU와 중동으로의 수출 확대에 따라 12.3%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월비도 1.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
- 자동차부품은 해외생산 확대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미국, EU, 인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35.0% 증가

● 6월 생산은 부품 공급 차질 문제를 일부 해소하며 전월비 6.4% 증가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남아 있으나 상황이 일부 개선되면서 전월비 증가로 전환하였고, 출하와 재고도 전월비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생산, 출하, 재고 모두 전년동월비 증가하였으며 가동률도 상승

(3) 조선

□ 생산지표 더욱 악화, 수출입은 증가 지속

● 코로나 종식 지연에 의해 경기회복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말 기준 세계 선박 발주량은 CGT 기준 전년동월비 117.0% 증가

- 8,000TE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전년동월비 약 452%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선종에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의 6월 기준 누적 수주량은 1,050만 CGT로 전년동월비 145.0% 증가
- 후판가 급등에 의한 높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업계의 분기 영업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6월 말 기준 수주잔량은 약 2,670만 CGT로 중국에 이어 2위를, 600만 CGT를 기록한 건조량도 중국 690만 CGT에 이어 2위를 기록
- 업체 채산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후판가로 신조선가 지수는 6월 말 기준 139로 상승하였고, 해운의 BDI 지수는 8월 6일 기준 3,371로 추세적 상승세, 공급망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HR 지수는 4,191로 2002년 이후 최고치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17.6	8.6	-1.3	-15.6	-17.3	-13.8	-15.8	-21.9	-
	생산(전기비)	-	-	-2.2	-14.3	-3.6	-1.2	-0.2	-4.1	-
	출하	20.0	7.2	-2.5	-17.2	-17.8	-14.8	-16.1	-22.4	-
	가동률	42.3	21.1	11.2	-9.2	-10.7	-4.9	-9.2	-17.4	-
교역동향	수출	-5.2	-2.0	32.1	28.3	11.9	14.4	-14.9	41.2	9.3
	수입	-9.7	44.4	40.7	-3.6	-5.6	-48.7	4.6	30.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7월 수출은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수주했던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등 주력 선종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증가 지속

- 수주 시점의 낮은 선가와 후판가 급등 때문에 일부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수의 대형 LNG운반선,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30만 톤 이상의 유조선과 제품운반선 등이 적기에 인도되면서 7월 수출은 9.3% 증가

● 6월 수입은 대중국 탱커 수입 증가, 연말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선박 수주의 영향으로 선박용 부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 지속

- 대일 노후선 수입은 19.8% 감소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반입이 10.2% 증가(벌크선 26.7% 감소, 탱커 140.1% 증가)하였고, 선박용 부품 수입이 44.5% 증가하면서 6월 수입은 30.3% 증가

(4) 일반기계

□ 생산, 수출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6월 생산은 내수와 수출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5.9%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지속

- 내수출하와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년동월비 10% 안팎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계수주는 47.7%의 대폭 증가

  * 기계류 내수출하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4월) 6.9 → (5월) 10.0 → (6월) 8.2
  * 기계류 설비투자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4월) 23.8 → (5월) 14.4 → (6월) 11.4
  * 국내 기계수주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4월) 26.3 → (5월) 57.5 → (2021.6월) 47.7

- 재고율(재고/출하)은 수요 대응을 위한 재고물량의 증가로 상승세 지속

  * 재고율(%): (2021.4월) 94.9 → (5월) 101.2 → (6월) 105.3

- 가동률은 내수와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상승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5.9	3.6	3.7	9.4	17.5	17.6	19.3	15.9	-
	생산(전기비)	-	-	5.1	2.2	1.4	6.0	-5.3	1.1	-
	출하	-5.1	1.6	1.9	8.0	19.0	19.3	21.4	16.8	-
	재고	2.6	8.4	8.4	14.1	18.1	10.8	13.5	18.1	-
	가동률	1.0	-6.6	-4.0	-4.7	11.3	9.2	15.8	9.3	-
교역동향	수출	-1.9	-8.9	-5.1	-1.4	21.3	17.1	25.7	21.4	18.4
	수입	-3.6	-0.2	4.7	-1.4	21.3	11.6	16.6	14.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7월 수출은 제조업, 건설업 등 수요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년동월비 18.4%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 완화로 주요 수출국의 수요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건설 인프라 및 생산장비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대중동 수출은 국제유가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원유생산국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24.3% 증가

  * 7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6.8, 30.4%), 유럽(4.8, 54.9%), 일본(1.8, 1.2%), 중남미(1.9, 45.2%), 중동(1.5, 24.3%), 인도(0.8, 36.7%)

● 6월 수입은 내수 및 설비투자 확대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14.1% 증가한 28억 7,0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건설광산기계(87.8%), 운반하역기계(85.6%), 제지인쇄기계(80.6%)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섬유 및 화학기계(-44.9%), 식품가공포장기계(-6.3%) 등은 감소

(5) 철강

□ 국내외 수요산업 호조로 생산, 수출, 수입 모두 큰 폭 증가세

● 6월 생산은 국내 내수산업 호조와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20.8% 증가

- 자동차, 가전 수요 호조의 지속으로 냉연강판, 봉강, 컬러강판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하반기 가격인상,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가수요로 인해 스테인리스 강판 역시 생산이 큰 폭으로 급증

  * 5월 생산증가율(전년동월비): 철강재 15.1%, 봉강 121.1%, 냉연강판 36.5%, STS 냉연강판 65.6%, 컬러강판 62.9%, 기타도금강판 54.7%

● 7월 수출은 높은 수출단가의 지속과 건설 · 자동차 등 주요국 전방산업 경기 개선효과로 전년동월비 41.5% 증가

- 인도, 중남미 등 코로나19 회복이 지연되었던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의 내수 위주 공급으로 대일본 수출은 증가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감소

  *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기비): 중남미 94.9%, 인도 188.3%, 일본 22.4%, 중국 -15.8%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2.2	-6.3	-1.5	-1.9	13.3	5.9	14.2	20.8	-
	생산(전기비)	-	-	8.1	0.0	1.8	2.3	-3.0	2.4	-
	출하	-2.0	-6.1	-0.1	2.2	17.9	17.9	21.1	15.0	-
	재고	-0.3	-16.8	-16.8	-19.3	-27.0	-28	-30.0	-27.0	-
	가동률	-2.1	-6.0	-1.0	-1.5	13.4	6.1	14.7	20.9	-
교역동향	수출	-8.6	-14.5	-7.0	7.7	50.7	38.9	62.9	51.7	41.5
	수입	-0.9	-24.7	-24.1	3.3	40.5	24.6	31.7	70.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6월 수입은 수요산업의 경기회복과 국내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재고확보 수요의 증가로 전년동월비 70.8% 큰 폭 증가

- 대다수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국내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철근(전년동월비 142%)과 자동차·가전·건설 등에 사용되는 도금강판(전년동월비 147%)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반면 후판의 경우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후판 설비 구조조정과 중국의 수입 오퍼가격 상승 및 감산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7% 감소

(6) 정유

□ 수출은 5개월 연속 대폭 증가

● 6월 생산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4% 증가

- 내수는 벙커C유를 제외한 수송용 및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전반적 수요 확대로 8.0% 증가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휘발유(5.9%), 경유(2.9%), 나프타(3.9%), 벙커C유(-10.7%), 항공유(5.0%), 윤활유(101.9%), LPG(28.1%), 아스팔트(6.2%)
- 수출물량은 휘발유, 항공유 및 윤활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의 전반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유의 수출 부진으로 1.6%의 소폭 증가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휘발유(72.4%), 경유(-11.3%), 나프타(-30.7%), 벙커C유(-29.5%), 항공유(4.3%), LPG(-34.1%), 아스팔트(-24.8%), 윤활유(52.6%)

● 7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73.0% 증가

- 국제유가 상승 및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수출물량 확대로 5개월 연속 대폭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증가율): (2020.7월) 43.3 → (2021.7월) 72.9(68.4%)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0.7월) 48.3 → (2021.7월) 78.0(61.5%)
  * 석유제품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0.7월) 20.5 → (2021.7월) 35.5(73.0%)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6.3	-6.3	-8.6	6.3	5.6	9.1	4.4	-
	생산(전기비)	-	-	-0.6	-1.4	6.9	6.3	3.3	-4.0	-
	출하	-1.4	-7.3	-10.5	-11.9	1.4	-0.2	2.1	2.0	-
	재고	-10.5	-8.6	-8.6	-17.7	-9.9	-13.6	-7.9	-9.9	-
	가동률	-2.3	-6.2	-6.3	-8.7	6.4	5.3	9.2	4.7	-
	내수판매동향	-0.3	-5.8	-9.9	0.3	5.0	10.3	-2.4	8.0	-
교역 동향	수출	-12.2	-40.6	-44.7	-16.5	110.6	99.7	168.5	80.1	73.0
	수입	-18.2	-26.1	-45.6	-19.1	151.5	146.0	182.3	132.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확대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 지속
  * 지역별 수출증가율(%): 중국(-33.8), 미국(158.7), 일본(70.6), 아세안(115.8)

(7) 석유화학

□ 주요 수출국 수입수요 증가와 국내 공급능력 확대로 수출 증가세 지속

● 6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16.2% 및 8.2% 증가
- 6월 국제유가는 선진권 하절기 수요 강세 예상, 세계은행의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등 석유수요 여건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며 상승
- 에틸렌 가격은 동아시아 시장 내 수요 증가와 해상 물류 차질로 공급이 타이트해지며 상승했으나, 나프타 가격 인상폭이 더 커지며 에틸렌-나프타 마진은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형성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3	-3.0	-1.2	2.8	15.7	12.4	18.7	16.2	-
	생산(전기비)	-	-	2.7	3.6	1.9	-0.3	-1.2	1.2	-
	출하	1.1	-2.9	-4.2	2.8	10.6	11.6	11.9	8.2	-
	재고	-0.4	-6.2	-6.2	-11.2	2.8	-8.8	-2.6	2.8	-
	가동률	-4.4	-1.8	-0.6	0.4	9.3	8.2	11.9	8.0	-
교역 동향	수출	-14.8	-16.4	-7.8	26.8	81.9	82.8	94.4	68.4	59.5
	수입	-12.8	-15.1	9.7	18.1	72.5	61.1	85.3	71.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 제품 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8% 증가하며 재고는 2.8% 증가
- LDPE는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이 타이트해지며 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여타 유도품 제품 마진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축소

● 7월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글로벌 화학제품 수요 증가와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로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59.5% 증가

- 7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72.9달러로 전년동월비 68%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톤당 수출단가도 64.8% 상승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정책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며 건설용 합성수지 수요 증가
- 운송수요 회복에 따른 타이어 수요와 의료용 라텍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며 합성고무 호조세 지속

※ 주요 수출국(전년동월비 증가율): 중국(34.5%), 아세안(58.5%), EU(124.6%)

(8) 섬유

□ 내수 위축 속 수출 호조 지속

● 국내 의류 소매판매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4.8%의 낮은 증가

* 의류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4월) 27.6% → (5월) 5.2% → (6월) 4.8%

● 6월 생산은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7.9%로 높은 증가

- 수출의존도가 높은 화학섬유의 경우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104.0% 급증
- 염색·가공업이 4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직물이 24.1% 증가
- 의류는 3.4%의 낮은 증가에 그쳤는데 편직의류가 14.3%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봉제의류는 4.7%의 소폭 증가를 보인 반면, 액세서리는 15%의 큰 폭 하락
-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부직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섬유제품은 전년동월의 높은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로 7.9% 감소

●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으로 17.6% 증가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6.6	-14.8	-12.2	-5.7	20.5	18.4	25.6	17.9	-
	생산(전기비)	-	-	-10.5	-4.6	18.3	14.2	26.1	15.3	-
	출하	-4.9	-11.9	-7.6	-1.1	14.2	15.9	15.9	10.7	-
	재고	-0.4	-4.7	-4.7	-12.6	-5.7	-11.7	-9.0	-5.7	-
	가동률	-2.5	-12.4	-8.2	-4.0	34.5	30.2	41.3	33.0	-
교역동향	수출	-8.0	-13.3	-6.6	-8.3	46.2	2.4	10.7	14.7	17.6
	수입	-0.2	-5.3	-2.8	9.0	16.4	12.9	14.9	12.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 (2020.7월) 9.7(-15.1) → (2021.7월) 11.4(17.6)
* 7.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 아세안 3.1(17.1), 미국 1.2(10.6), 중국 1.2(29.7)

(9) 가전

□ 경기 호조에 따른 선진국 수요 증가로 수출과 생산은 증가세 지속

● 6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8.8%, 전월비로는 1.3% 증가

- 생산은 생활가전 분야의 수출 호조 지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분야는 감소세 심화
-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등 일부 해외생산 차질로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요증가세도 지속되면서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2년 연속 증가
  * 6월 생산지수: (2019) 93.0 → (2020) 98.6 → (2021) 107.3
  * 6월 생활가전 생산지수: (2019) 95.0 → (2020) 107.6 → (2021) 139.1
- 재고는 생활가전 분야의 수요 및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비 6.1% 증가
- 가동률은 조명기기와 영상음향기기 부진 악화로 상승세 둔화

● 7월 수출은 선진국의 수요 증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29.7% 증가

- 경기 호조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수요 증가와 국내 생산 증가로 기저효과 종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7월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2019) 2.1% → (2020) 5.3% → (2021) 29.7%
-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이나, TV와 음향기기부품은 해외생산 확대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상반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음향기기부품 -25.4%, 컬러TV -75.0%

● 6월 수입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역수입에 따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내수성장이 둔화하면서 증가세는 완화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5.3	3.1	4.2	8.5	13.6	18.5	14.3	8.8	-
	생산(전기비)	-	-	-3.6	4.3	3.5	-6.2	-0.3	1.3	-
	출하	-4.3	1.4	5.7	3.8	4.7	4.3	8.2	2.0	-
	재고	-12.5	11.1	19.7	16.1	24.5	42.6	30.3	6.1	-
	가동률	-1.1	2.4	1.6	3.7	8.6	13.9	9.8	3.0	-
교역동향	수출	-3.6	0.5	18.9	15.8	66.5	69.3	89.4	47.6	29.7
	수입	-0.1	6.3	24.8	39.3	24.0	37.4	23.0	13.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10) 무선통신기기

□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생산지표도 비교적 양호

● 6월 생산은 휴대폰 시장 비수기에 따른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21.5% 증가

- 출하도 수출 확대로 14.4% 증가하고 가동률도 10% 상승
- 국내 휴대폰 시장은 비수기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2.9% 감소하며 부진
  - * 6월 국내 휴대폰 시장(가입자 회선 수 기준)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이 각각 1.5% 및 4.5% 증가했지만, 번호이동이 22.3% 감소하며 부진
  - * 6월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1,647만 명으로,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약 23% 비중을 차지

● 7월 수출은 약 11억 7,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5.0% 증가하며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11.3	2.2	28.7	41.7	52.5	53.3	21.5	-
	생산(전기비)	-	-	19.3	7.5	0.3	12.5	-7.6	-8.9	-
	출하	-7.7	-14.4	0.3	43.4	36.0	50.4	46.6	14.4	-
	재고	0.7	15.2	15.2	4.1	4.1	-4.3	-1.3	-7.2	-
	가동률	-3.6	-8.5	-5.2	29.1	24.4	29.1	34.5	10.0	-
교역 동향	수출	-17.6	-6.4	11.9	21.6	38.6	79.7	41.4	3.5	5.0
	수입	9.6	-4.9	-2.3	20.1	0.6	12.3	-5.6	-6.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코로나 재확산,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른 수요 둔화와 중국의 공격적 글로벌 시장 진출, 높은 해외생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 유지
  * 7월 휴대폰 수출(3억 9,000만 달러)은 전년동월비 0.6% 증가, 휴대폰부품 수출(5억 8,000만 달러)은 1.6% 증가
- 샤오미, 비보 등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약진으로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과 유럽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
  *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2021.2분기, 옴디아): 삼성 19%, 샤오미 17%, 애플 14%, 오포 11%, 비보 11%
- 지역별로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이 각각 27.7% 및 29.4% 증가한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29.9% 감소

● 6월 수입은 휴대폰이 51.8%의 큰 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비 6.5%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

- 품목별로 보면 무선송수신기가 69.1% 증가했고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14.9%, 무선통신기기부품은 6.6% 증가

(11) 반도체

□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7월 수출액 역대 1위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9.6% 증가한 109억 9,700만 달러로 초호황기였던 2018년 7월의 103억 8,400만 달러보다 6억 1,300만 달러 늘어나, 역대 7월 실적 중 가장 큰 규모

-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
-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수출증가율이 각각 30.2%, 24.5%, 34.4% 및 39.6%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6월 생산과 출하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각각 25.5% 및 40.8% 증가

- 2/4분기 생산은 전기비 0.5%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비 27.2% 증가하여 생산은 차질 없이 증가 중
- 6월 재고는 전년동월비 25.7%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지만, 수급은 원활한 상황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11.7	23.9	12.6	21.9	27.2	29.8	26.8	25.5	-
	생산(전기비)	-	-	3.5	16.9	-0.5	-11.1	5.2	8.6	-
	출하	12.0	28.9	29.9	36.7	40.7	40.1	41.7	40.8	-
	재고	-9.6	9.0	8.7	4.3	-25.7	-0.9	-15.4	-25.7	-
	가동률	-3.0	3.7	-0.8	4.5	7.0	9.1	7.3	5.2	-
교역동향	수출	-25.9	5.6	18.7	14.0	29.7	30.2	24.5	34.40	39.6
	수입	5.2	6.9	23.1	13.0	25.1	28.4	20.6	26.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안정적이며,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경기는 호조세 지속

- 메모리반도체 현물가격 및 계약가격(고정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버 수요 및 5G 통신 보급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4분기 매출도 각각 22조 7,400억 원, 10조 3,200억 원으로 전년동기비 증가

  * 2020년 2/4분기 매출액: 삼성전자(18조 2,300억 원), SK하이닉스(8조 6,000억 원)

(12) 디스플레이

□ OLED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지속

● 6월 생산은 LCD 생산 축소로 둔화

- LCD 감산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5.9% 감소하였고, 전월비로도 0.6% 감소
- 출하와 재고량 모두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 감소로 산업 전반적으로 위축
- OLED 스마트폰 및 태블릿 수요 확대로 상반기에는 증가로의 전환 전망

● 7월 수출은 OLED 수요 확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38.0%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

- LCD 수출은 감산으로 인한 물량 축소로 11.1% 감소하여 두 달 연속 감소

  * LCD 가격(달러): 55인치 TV (2020.7월) 118 → (2021.7월) 232

    14인치 노트북 (2020.7월) 28 → (2021.6월) 48

- OLED 수출은 스마트폰 OLED 중심의 출하량 확대에 따라 89.6% 대폭 증가 기록, 작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 OLED 출하량(백만 대): 모바일 (2020.6월) 21.7 → (2021.6월 추정) 39.0

    TV (2020.6월) 0.4 → (2021.6월 추정) 0.7

  * 총수출에서의 OLED 비중(%): (2019) 50.0 → (2020) 60.6 → (2021.5월) 67.0

- 대아세안 수출은 58.5%의 큰 폭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출도 24.7% 증가하여 5억 달러 이상 회복

  * 주요 지역 수출액(억 달러): 아세안 14.6, 중국 5.7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동향	생산(동기비)	-9.3	-6.3	5.3	-4.6	1.0	1.9	7.7	-5.9	-
	생산(전기비)	-	-	7.7	-5.8	-4.8	-1.1	-3.1	-0.6	-
	출하	-11.8	-8.8	2.4	-8.6	-5.0	-5.7	2.4	-10.7	-
	재고	-35.0	-9.2	-9.2	-20.7	-20.7	-6.5	-7.4	-18.1	-
	가동률	-6.1	-1.6	8.3	-4.7	-18.1	5.1	10.2	-4.5	-
교역동향	수출	-17.0	-12.3	17.8	17.8	17.8	43.5	38.6	28.2	38.0
	수입	-9.6	-29.6	-32.7	-32.7	-32.7	-9.7	-26.3	-32.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6월 생산, 전년동월비 4.9% 증가

- 6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협회·수리·개인서비스,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했으나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 금융·보험, 부동산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4.9% 증가(전월비로는 1.6%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은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5.5%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0.8%) 실적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도매업(5.9%)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3.9%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서비스 총지수	106.9	108.4	106.2	110.5	105.9	110.8	109.5	109.5	113.5
상승률	2.3	1.4	-2.0	-2.0	2.2	5.7	8.3	4.2	4.9
전기비	-	-	-	0.9	0.6	1.7	0.2	-0.4	1.6
도·소매	1.5	-0.4	-2.6	-1.8	3.3	5.4	9.3	3.1	3.9
운수·창고	2.1	0.0	-14.2	-13.1	-2.2	11.0	14.9	8.9	9.4
숙박·음식점	-1.9	-1.0	-18.5	-24.6	-13.1	1.5	8.3	-2.1	-0.5
정보통신	1.4	3.5	1.4	0.0	2.0	3.8	2.9	2.9	5.4
금융·보험	5.8	1.7	14.0	18.7	14.8	9.7	11.7	7.4	10.1
부동산	0.2	0.4	5.5	0.5	-2.7	5.7	8.8	5.5	3.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	1.4	0.1	0.3	2.1	4.2	6.9	2.7	3.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0.6	2.3	-9.9	-11.7	-4.7	5.3	5.5	5.3	5.5
교육	0.1	-0.5	-4.7	-3.9	0.1	2.9	4.7	3.3	0.8
보건·사회복지	5.6	8.1	1.4	-0.4	0.8	3.0	2.4	3.1	3.7
예술·스포츠·여가	-0.6	1.2	-32.6	-33.3	-18.0	20.6	34.9	18.3	11.7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7	-1.5	-8.2	-10.4	-1.6	0.3	8.0	-3.6	-2.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0	-0.4	3.3	2.3	0.5	6.1	6.6	6.3	5.2
지식서비스	3.2	3.1	3.9	4.7	5.5	5.5	6.6	4.5	5.5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은 2020년 3월~2021년 5월까지 전년동월비가 7.6%(2020년 8월)~37.0%(2021년 1월)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1년 6월에 0.8%로 증가세 둔화

- 운수·창고업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8.2%), 항공운송업(12.1%) 실적 호조 지속 및 수상운송업(7.6%), 육상운송업(4.6%)도 증가해 전년동월비 9.4% 증가

* 항공운송업은 2020년 4월(-65.3%), 8월(-65.4%), 2021년 1월(-66.5%)에 2000년 이후 최대폭 감소(종전 2009년 6월, -16.2%)했으나, 2021년 3월 이후 증가세 전환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18.4%) 실적 호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업(-1.3%), 주점업(-6.5%) 실적 악화로 전년동월비 0.5% 감소

* 숙박업은 2021년 4월(55.1%)부터 전년동월비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음식점업은 2020년 이후 2021년 3월(18.2%)에 처음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다시 5월(-4.1%), 6월(-1.3%) 전년동월비 감소

● 정보통신업은 정보서비스(15.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1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등 모든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5.4% 증가

* 5월 전년동월비 11.3% 감소했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실적 호조(전월비 17.6% 증가)가 상승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10.1%), 보험업(9.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7.3%) 모두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10.1% 증가

* 금융·보험업은 2021년 1월(23.8%)에 2010년 1월 이후 최대폭 증가 후 증가세 둔화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2021년 1월(118.8%)에 2010년 1월 이후 최대폭 증가 후 증가세 둔화

●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7%) 실적 악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11.3%) 실적 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3.1%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전문서비스업(6.4%),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3%)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3.2%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 11.8%),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4.5%), 사업지원서비스업(3.9%) 실적 호조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5.5%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2020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4월

(-13.5%)에 2000년 이후 최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 3월에 증가세 전환

● 교육은 학원(8.7%)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기관(2.2%), 고등교육기관(-5.6%, 전월비 3.6% 감소), 중등교육기관(-1.2%)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비 0.8% 증가

* 교육은 2020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3월(-9.7%)에 2000년 5월(-9.5%) 이후 최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 3월에 증가세 전환

● 보건·사회복지업은 의원(4.6%), 병원(4.1%), 거주복지시설 운영업(4.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3%)이 증가해 전년동월비 3.7%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는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10.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6.2%) 모두 실적 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11.7% 증가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협회 및 단체(7.9%) 실적 호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3.4%), 기타 개인서비스업(-3.1%)이 감소해 전년동월비 2.4% 감소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8.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1.8%), 수도업(0.6%)이 모두 증가해 전년동월비 5.2% 증가

(2) 고용

□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6만 6천 명(2.5%) 증가

● 6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도·소매, 협회·수리·개인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운수·창고, 공공행정·국방 등 대부분 업종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월비 46만 6,000명(2.5%) 증가(전월비로는 8만 6,000명 증가, 0.4%)

● 보건·사회복지는 전년동월비 20만 7,000명(8.7%) 증가, 전체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 증가의 44.4%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그러나 2021년 2월에 전월비 24만 5,000명 대폭 증가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2021년 6월에는 전월비 2만 1,000명으로 증가폭은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총취업자 수	18,796	19,111	18,866	18,864	18,514	19,270	19,094	19,313	19,399
증감률	0.4	1.7	-1.3	-2.2	-2.0	2.6	2.7	2.6	2.5
전기비	-	-	-	-0.3	-1.9	4.1	1.1	1.1	0.4
도·소매	-1.9	-1.6	-4.4	-5.1	-5.4	-4.5	-5.2	-3.8	-4.7
운수·창고	0.1	1.8	3.6	1.8	2.8	6.5	7.3	6.2	6.1
숙박·음식점	-2.0	2.7	-6.9	-10.1	-9.3	1.2	3.0	0.2	0.6
정보통신	7.0	2.8	-1.6	-2.1	0.5	4.9	4.8	3.4	6.6
금융·보험	5.8	-4.7	-2.7	-3.1	1.8	4.1	3.4	3.2	5.7
부동산	-2.2	5.3	-7.0	-12.4	-7.3	2.7	0.3	2.6	5.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4	5.5	0.6	-0.2	1.2	6.1	5.6	5.0	7.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6	0.1	2.7	4.3	1.9	5.6	3.0	7.7	6.1
공공행정·국방	4.9	-3.0	3.3	11.2	5.0	7.6	7.4	7.6	7.9
교육	-3.2	2.0	-4.6	-5.5	-2.3	2.4	3.7	2.3	1.1
보건·사회복지	6.5	7.8	5.9	3.9	2.8	9.6	9.9	10.3	8.7
예술·스포츠·여가	3.8	11.3	0.3	-10.1	-8.9	-6.2	-2.2	-7.7	-8.2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2	-0.3	-3.5	-3.5	-7.1	-3.6	-2.6	-3.8	-4.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3	6.6	12.9	12.9	11.1	11.9	12.8	13.3	10.4
지식서비스	2.6	3.6	0.2	-0.9	0.8	5.9	6.2	5.7	5.9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운수·창고(9만 명, 6.1%), 공공행정·국방(8만 7,000명, 7.9%), 전문·과학·기술서비스(8만 6,000명, 7.5%), 정보통신(5만 7,000명, 6.6%),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8만 1,000명, 6.1%)도 전년동월비 크게 증가

- 교육(2만 1,000명, 1.1%), 금융·보험(4만 4,000명, 5.7%), 수도·하수·폐기물처리(1만

6,000명, 10.4%), 부동산(2만 6,000명, 5.1%), 숙박·음식점업(1만 2,000 명, 0.6%)도 전년동월비 증가

- 반면,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비 16만 4,000명(-4.7%) 감소해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
  - 2021년 1월(-6.1%), 3월(-4.7%), 5월(-3.8%)로 전년동월비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6월에 다시 확대

- 협회·수리·개인서비스(-5만 5,000명, -4.6%), 예술·스포츠·여가(-4만 2,000명, -8.2%)도 감소
  -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2019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중이며, 2021년 1월(-8.5%)에 2015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최대폭 감소
  - * 예술·스포츠·여가는 2020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비 감소했으며, 2021년 1월(-15.9%)에 전년동월비 최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 3월에 증가세 전환 후 4월부터 다시 감소세 전환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41만 5,000명(5.9%) 증가(전월비로는 7만 6,000명 증가)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37만 9,000명 증가(전월비로는 7만 5,000명 증가)
  - 전년동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3월) 16.2 → (4월) 42.8 → (5월) 40.4 → (6월) 37.9
  - 전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3월) 28.7 → (4월) 18.3 → (5월) 20.4 → (6월) 7.5
  - * 민간부문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2013년 1월 이후 2021년 1월에 전년동월비, 전월비 모두 최대폭 감소 후 2021년 전년동월비 3월부터, 전월비 2월부터 증가세 전환

(3) 서비스수지

□ 6월 9억 5,000만 달러 적자

● 6월 서비스수지는 운송,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흑자 확대 및 여행 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사용료의 적자 전환으로 인해 9억 5,000만 달러 적자(전월비 3억 8,000만 달러 적자 확대)

- 지식재산권사용료는 전월 1억 3,000만 달러 흑자에서 7억 5,000만 달러로 적자 전환

● 운송수지는 전월비 1억 달러 이상 증가하여 12억 9,000만 달러로, 2012년 7월(10억 7,000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큰 흑자 기록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서비스수지	-29,369	-26,845	-16,190	-2,342	-1,399	-1,498	12	-563	-947
가공서비스	-7,325	-7,611	-5,685	-1,494	-1,475	-1,425	-472	-448	-505
유지보수	-323	-348	-913	-230	-221	-208	-121	-81	-6
운송	-2,508	-1,734	2,132	1,506	2,519	3,290	808	1,188	1,294
여행	-16,566	-11,872	-5,630	-1,428	-1,251	-1,805	-605	-712	-488
건설	9,719	6,776	4,770	1,445	1,225	887	312	330	246
보험	107	-256	-336	86	-106	-84	-25	-25	-33
금융	817	921	1,757	555	368	442	81	129	232
지식재산권사용료	-2,063	-2,157	-3,034	-645	-783	-984	-368	137	-752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557	2,461	1,604	514	856	1,142	674	16	452
기타 사업서비스	-12,215	-12,391	-10,410	-2,576	-2,403	-2,795	-297	-1,175	-1,323
개인, 문화, 여가	227	271	184	93	127	155	67	63	26
정부	-797	-905	-629	-169	-254	-115	-41	14	-88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해상운송수지 흑자가 전월비 1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전체 운송수지 흑자 확대 주도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는 전체 흑자규모가 전월 1,600만 달러에서 4억 5,000만 달러로 대폭 확대
  - 컴퓨터 서비스 수지가 전월 2억 달러 적자에서 1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하며 전체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흑자 확대 주도

-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는 사용료 지출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수입이 각각 7억 4,000만 달러, 1억 2,000만 달러 감소하여 적자 전환

- 건설은 흑자규모가 전월 3억 3,000만 달러에서 2억 4,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
  *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흑자규모 기록

- 기타사업서비스는 기술·무역·기타사업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적자 대폭 증가로 전체 적자규모가 전월 11억 7,000만 달러에서 13억 2,000만 달러로 확대,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 차지

- 여행업은 일반여행 적자 감소로 전체 적자규모가 전월 7억 1,000만 달러에서 4억 9,000만 달러로 감소

- 가공서비스의 적자규모는 전월 4억 4,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소폭 확대

Ⅳ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6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11.9% 증가

- 대구(27.9%), 충북(22.5%), 광주(18.2%)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전국		0.4	-0.4	0.2	0.0	4.4	13.0	4.6	12.2	14.9	11.9
수도권	서울	-6.4	-15.3	-16.2	-10.1	0.9	11.3	9.3	11.0	9.4	13.6
	인천	-5.3	-1.0	4.2	-1.4	3.4	15.6	2.3	14.6	16.2	16.1
	경기	3.6	8.6	10.6	1.0	11.0	18.5	14.0	22.0	18.7	15.2
충청권	대전	10.1	-6.9	-3.0	-4.0	3.8	13.0	6.3	12.0	21.1	7.3
	세종	2.1	7.1	4.7	10.2	8.8	14.7	9.9	13.1	16.9	14.5
	충북	1.8	-5.2	-4.9	2.2	7.6	19.6	6.3	12.1	24.9	22.5
	충남	-4.4	-2.4	-4.2	0.1	-0.2	7.1	-3.9	7.2	9.5	4.7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호남권	광주	-0.9	-0.2	12.5	7.6	7.9	29.4	5.6	35.2	37.3	18.2
	전북	-6.1	-5.7	-4.7	-4.7	2.6	12.2	3.8	6.6	14.5	16.1
	전남	2.1	-0.8	-2.0	-3.7	2.9	9.1	4.9	8.4	11.1	7.7
대경권	대구	0.0	-11.5	-11.0	-6.3	1.1	28.2	5.9	24.3	33.1	27.9
	경북	-2.0	-5.9	-4.0	-4.1	4.3	9.6	-2.0	8.3	12.9	7.6
동남권	부산	-1.8	-6.6	-7.1	-9.6	-7.4	2.0	-6.1	-0.1	6.5	0.0
	울산	1.3	-6.4	-3.0	-3.6	4.6	10.8	-2.2	6.5	15.3	11.3
	경남	1.6	-7.1	-7.0	-5.8	-4.2	8.7	-2.9	5.9	13.1	7.7
강원권		0.6	-5.3	-5.3	-5.1	-3.6	4.8	-2.0	1.8	7.5	5.5
제주권		-2.6	-6.1	-2.9	-1.6	3.7	10.2	1.7	5.6	15.9	9.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

(2) 고용

● 6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64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2.2% 증가

- 제주(4.6%), 경기(4.1%), 대구(4.0%)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울산(-1.3%), 광주(-0.7%), 경북(-0.2%)은 감소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전국		27,123 (1.1)	26,904 (-0.8)	27,068 (-1.1)	26,952 (-1.6)	26,369 (-1.4)	27,467 (2.3)	26,923 (1.2)	27,214 (2.5)	27,550 (2.3)	27,637 (2.2)
수도권	서울	5,086 (0.1)	5,051 (-0.7)	5,059 (-1.7)	5,054 (-1.5)	4,960 (-2.2)	5,081 (1.2)	5,045 (0.6)	5,057 (1.4)	5,088 (1.1)	5,098 (1.0)
	인천	1,581 (0.4)	1,560 (-1.3)	1,570 (-1.0)	1,556 (-2.0)	1,531 (-1.4)	1,575 (0.9)	1,550 (0.6)	1,562 (1.0)	1,585 (0.9)	1,578 (0.8)
	경기	6,952 (2.4)	6,909 (-0.6)	6,904 (-1.4)	6,906 (-1.9)	6,850 (-0.9)	7,154 (3.5)	6,979 (1.5)	7,062 (3.1)	7,179 (3.4)	7,220 (4.1)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충청권	대전	772 (1.7)	780 (1.0)	784 (-0.1)	788 (0.4)	759 (-2.2)	787 (1.8)	765 (-0.3)	775 (0.9)	787 (1.7)	799 (2.6)
	세종	168 (13.5)	180 (7.1)	185 (8.2)	182 (5.2)	180 (4.7)	188 (4.4)	184 (6.4)	187 (5.6)	188 (5.6)	189 (3.3)
	충북	880 (0.5)	890 (1.1)	901 (0.7)	887 (0.2)	859 (-1.3)	907 (0.6)	885 (0.1)	897 (1.1)	911 (0.3)	912 (0.1)
	충남	1,196 (1.4)	1,176 (-1.7)	1,207 (-0.2)	1,182 (-1.7)	1,115 (-1.1)	1,217 (2.3)	1,165 (1.6)	1,203 (2.6)	1,224 (2.9)	1,224 (1.6)
호남권	광주	750 (0.1)	748 (-0.3)	749 (-0.3)	748 (-1.4)	736 (-1.5)	752 (0.8)	744 (0.7)	751 (1.9)	754 (0.9)	750 (-0.7)
	전북	928 (1.4)	932 (0.4)	947 (1.4)	947 (1.4)	923 (1.9)	962 (3.6)	947 (4.4)	948 (3.8)	961 (3.2)	977 (3.5)
	전남	974 (1.4)	974 (0.0)	982 (0.1)	975 (-1.4)	947 (-1.5)	995 (1.8)	970 (1.0)	982 (2.3)	1,001 (2.0)	1,002 (1.1)
대경권	대구	1,219 (-0.6)	1,184 (-2.9)	1,200 (-2.2)	1,206 (-1.0)	1,184 (1.3)	1,229 (5.7)	1,212 (7.8)	1,217 (7.6)	1,235 (5.6)	1,235 (4.0)
	경북	1,430 (0.2)	1,418 (-0.8)	1,441 (-0.5)	1,422 (-1.9)	1,357 (-2.9)	1,417 (0.3)	1,383 (-0.6)	1,408 (0.9)	1,421 (0.0)	1,421 (-0.2)
동남권	부산	1,676 (1.1)	1,640 (-2.1)	1,643 (-2.9)	1,649 (-2.7)	1,618 (-2.0)	1,670 (3.4)	1,642 (-0.1)	1,658 (3.6)	1,672 (3.8)	1,680 (2.8)
	울산	571 (-0.5)	560 (-1.9)	563 (-2.3)	559 (-3.1)	549 (-2.7)	552 (-0.5)	555 (-0.2)	553 (0.2)	554 (-0.5)	550 (-1.3)
	경남	1,749 (0.2)	1,729 (-1.1)	1,739 (-0.9)	1,722 (-2.3)	1,682 (-2.8)	1,762 (2.0)	1,712 (-0.3)	1,748 (2.0)	1,766 (2.4)	1,772 (1.7)
강원권		811 (2.8)	795 (-2.0)	816 (-3.9)	786 (-3.2)	744 (-2.6)	832 (2.2)	803 (0.6)	818 (2.1)	836 (2.2)	843 (2.7)
제주권		382 (2.7)	378 (-1.0)	378 (-0.8)	383 (-1.5)	375 (-1.3)	388 (4.6)	384 (3.8)	389 (5.1)	387 (3.8)	386 (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9.8% 증가한 548억 달러를 기록

- 전국 수출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개 주력품목이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보이며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 지역 수출 1위인 반도체(모노리식집적회로)가 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월중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로 제주(10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시현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전국		-10.4	-5.5	-3.5	4.1	12.6	42.1	16.5	41.2	45.6	39.8
수도권	서울	-11.2	-7.1	-1.1	5.9	18.7	72.9	29.4	76.5	89.6	56.4
	인천	-6.8	-0.8	0.4	1.1	-1.0	27.7	-6.2	18.9	27.4	37.2
	경기	-18.6	-1.3	6.6	6.7	15.6	27.2	13.8	26.3	29.0	26.3
충청권	대전	-10.3	24.0	46.7	28.6	3.3	12.6	18.7	16.4	11.5	10.4
	세종	4.5	1.2	-3.8	4.1	13.4	31.1	20.6	26.2	50.1	19.6
	충북	-5.0	12.6	13.0	27.7	24.1	19.2	23.0	11.2	15.0	31.4
	충남	-13.1	-0.5	-4.0	10.4	12.9	42.4	14.2	45.4	42.4	39.7
호남권	광주	-8.5	2.7	20.3	17.0	17.7	49.3	9.9	61.5	69.2	25.2
	전북	-16.5	-10.6	-6.2	2.7	18.1	59.5	34.2	41.2	67.8	73.3
	전남	-11.0	-16.9	-14.9	-10.6	22.3	84.3	31.6	101.2	97.4	61.5
대경권	대구	-7.6	-16.4	-13.5	-7.8	5.7	65.1	15.7	60.8	82.5	55.0
	경북	-7.8	-1.6	-4.3	11.3	14.3	31.9	9.4	36.0	37.0	23.3
동남권	부산	-3.4	-18.7	-18.9	-16.2	8.7	59.5	6.3	43.6	68.9	68.9
	울산	-0.9	-19.3	-17.0	-13.1	5.4	65.7	20.7	50.8	73.4	75.2
	경남	-2.2	-8.8	-18.8	7.6	5.6	20.1	24.9	29.4	14.2	18.5
강원권		-0.4	-3.1	-0.6	11.0	34.7	47.5	37.5	49.8	72.9	25.6
제주권		-18.3	4.0	-8.8	13.4	16.9	92.7	46.2	81.9	95.3	101.5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생산 증가(13.6%), 고용 증가(1.0%), 수출 증가(56.4%)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6.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5.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9.3%) 등의 동반 호조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2.1%) 및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의 증가로 전체 고용 증가세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101.5%), 자동차부품(195.3%), 비누치약 및 화장품(42.2%), 반도체(59.5%) 등 품목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인천: 생산 증가(16.1%), 고용 증가(0.8%), 수출 증가(37.2%)
- 기타 기계 및 장비(59.0%), 자동차 및 트레일러(9.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52.1%) 등이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13.3%), 제조업(-5.5%)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6%)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97.1%), 자동차(109.0%), 철강판(9.5%) 등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경기: 생산 증가(15.2%), 고용 증가(4.1%), 수출 증가(26.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9.3%)와 자동차 및 트레일러(11.3%), 기타 기계 및 장비(4.1%) 등 주요 업종의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3.2%), 제조업(5.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9%)의 전 부문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7.2%), 자동차(64.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2.8%), 반도체제조용장비(7.4%)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0	-21.0	-22.8	-20.2	-6.3	8.2	13.9	8.9	8.7	6.8
		전자부품 외	-1.2	-17.0	-24.6	-5.7	1.1	10.8	3.8	11.0	6.1	15.3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8.2	-5.8	5.0	-9.7	-0.8	14.9	15.5	10.6	14.7	19.3
	인천	기계 및 장비	-10.2	-1.4	-0.1	11.3	20.1	52.9	17.6	50.7	48.6	59.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9.9	9.5	-8.5	-2.8	6.5	-20.2	-0.1	11.3	9.3
		전자부품 외	-7.8	2.9	-4.5	31.5	11.6	74.9	21.7	80.4	95.6	52.1
	경기	전자부품 외	3.9	19.7	23.9	7.6	22.3	22.4	24.7	25.4	22.9	19.3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10.0	-2.8	0.3	22.4	23.1	9.8	26.5	33.6	11.7
		기계 및 장비	27.2	14.0	2.4	-16.5	-10.4	14.5	-2.0	33.6	4.7	4.1
고용	서울	농림·어업	8 (14.3)	7 (-12.5)	8 (-11.1)	8 (0.0)	6 (0.0)	7 (-12.5)	6 (-14.3)	6 (-25.0)	7 (0.0)	7 (-12.5)
		제조업	449 (-0.2)	447 (-0.4)	454 (0.9)	443 (-0.4)	449 (0.4)	439 (-0.9)	456 (0.9)	436 (-3.8)	432 (-1.4)	448 (2.1)
		SOC·서비스	4,630 (0.1)	4,597 (-0.7)	4,597 (-1.9)	4,604 (-1.5)	4,506 (-2.4)	4,636 (1.4)	4,583 (0.5)	4,616 (2.0)	4,649 (1.3)	4,643 (0.9)
	인천	농림·어업	15 (150.0)	14 (-6.7)	16 (-20.0)	12 (-29.4)	9 (-25.0)	12 (-20.0)	9 (-35.7)	10 (-28.6)	13 (-13.3)	13 (-13.3)
		제조업	328 (-7.1)	324 (-1.2)	324 (-0.3)	322 (-0.3)	311 (-3.7)	303 (-7.9)	304 (-5.3)	295 (-9.0)	302 (-9.6)	311 (-5.5)
		SOC·서비스	1,238 (1.8)	1,221 (-1.4)	1,229 (-1.0)	1,221 (-2.2)	1,211 (-0.6)	1,260 (3.5)	1,235 (2.4)	1,256 (4.0)	1,270 (3.9)	1,253 (2.6)
	경기	농림·어업	118 (5.4)	107 (-9.3)	118 (-23.4)	98 (-16.2)	69 (-21.6)	122 (-2.4)	91 (-18.8)	113 (-11.7)	124 (1.6)	128 (3.2)
		제조업	1,259 (-4.7)	1,283 (1.9)	1,271 (2.1)	1,309 (1.8)	1,362 (5.8)	1,355 (7.1)	1,355 (6.0)	1,362 (8.3)	1,377 (8.0)	1,325 (5.1)
		SOC·서비스	5,575 (4.1)	5,519 (-1.0)	5,515 (-1.5)	5,500 (-2.5)	5,419 (-2.1)	5,677 (2.8)	5,534 (0.9)	5,587 (2.2)	5,677 (2.4)	5,767 (3.9)
수출	서울		57,379 (-11.2)	53,332 (-7.1)	14,013 (-1.1)	15,303 (5.9)	16,333 (18.7)	17,736 (72.9)	6,107 (29.4)	6,113 (76.5)	5,680 (89.6)	5,943 (56.4)
	인천		38,018 (-6.8)	37,701 (-0.8)	9,192 (0.4)	9,947 (1.1)	10,057 (-1.0)	10,731 (27.7)	3,607 (-6.2)	3,488 (18.9)	3,402 (27.4)	3,842 (37.2)
	경기		116,686 (-18.6)	115,157 (-1.3)	30,154 (6.6)	31,098 (6.7)	31,166 (15.6)	34,256 (27.2)	11,337 (13.8)	11,385 (26.3)	11,015 (29.0)	11,856 (26.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2) 충청권

● 대전: 생산 증가(7.3%),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10.4%)
-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2.6%), 기타 기계 및 장비(35.7%)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13.6%)이 감소세이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1%)의 증가폭 확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93.2%), 기호식품(8.4%), 원동기 및 펌프(32.8%) 등이 증가하며 지역 수출 증가세

● 세종: 생산 증가(14.5%), 고용 증가(3.3%), 수출 증가(19.6%)
- 광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4.5%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제조업(-4.2%)은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22.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6%)에서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30.9%), 합성수지(122.6%), 정밀화학원료(195.1%)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충북: 생산 증가(22.5%), 고용 소폭 증가(0.1%), 수출 증가(31.4%)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0.0%), 식료품 제조업(7.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72.7%) 등의 동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1.0%), 제조업(8.1%)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8%)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16.7%), 농약 및 의약품(242.1%), 건전지 및 축전지(59.7%), 플라스틱 제품(19.5%), 정밀화학원료(87.0%)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충남: 생산 증가(4.7%), 고용 증가(1.6%), 수출 증가(39.7%)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4.7%)는 감소세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5.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2%)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9.7%), 제조업(1.2%)의 증가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3%)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구분	지역	주요업종(품목)	2019 연간	2020 연간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월	2021 4월	2021 5월	2021 6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7.4	11.7	25.3	27.6	9.6	12.4	22.7	28.7	9.5	2.6
		기계 및 장비	18.5	-23.6	-30.6	-15.3	17.3	25.6	1.5	19.3	20.0	35.7
		화학제품 외	32.8	-4.7	11.2	4.9	14.7	-11.8	24.3	-8.7	-4.4	-20.4
	세종	총지수	2.1	7.1	4.7	10.2	8.8	14.7	9.9	13.1	16.9	14.5
	충북	전자부품 외	3.8	-14.2	-16.8	-1.9	9.4	29.6	7.8	18.7	40.3	30.0
		식료품	13.3	5.3	7.9	4.7	4.6	7.7	6.2	3.7	12.3	7.7
		화학제품 외	1.2	3.3	-0.9	27.5	30.4	56.7	21.4	30.2	77.5	72.7
	충남	전자부품 외	-9.8	-9.5	-12.8	5.7	-23.1	-10.0	-33.2	-7.0	-8.0	-14.7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0.4	8.0	-7.6	5.8	5.3	-5.2	7.2	3.2	5.4
		화학제품 외	-3.0	-1.4	-11.1	-3.5	4.4	13.1	15.1	17.9	15.9	5.2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14.3)	8 (0.0)	7 (-22.2)	7 (-30.0)	7 (-22.2)	8 (-11.1)	9 (0.0)	9 (0.0)	8 (-11.1)	9 (0.0)
		제조업	102 (21.4)	105 (2.9)	103 (-1.9)	100 (-8.3)	94 (-14.5)	93 (-12.3)	91 (-15.0)	95 (-12.8)	96 (-9.4)	89 (-13.6)
		SOC·서비스	661 (-1.0)	667 (0.9)	673 (0.3)	680 (2.3)	656 (0.0)	685 (4.1)	665 (2.3)	671 (3.2)	683 (3.6)	701 (5.1)
	세종	농림·어업	8 (14.3)	8 (0.0)	9 (12.5)	7 (0.0)	6 (20.0)	11 (22.2)	8 (14.3)	10 (25.0)	11 (22.2)	11 (22.2)
		제조업	24 (0.0)	24 (0.0)	24 (0.0)	24 (4.3)	25 (4.2)	23 (0.0)	25 (4.2)	23 (0.0)	22 (-4.3)	23 (-4.2)
		SOC·서비스	136 (16.2)	148 (8.8)	153 (10.1)	151 (5.6)	150 (4.9)	155 (4.7)	151 (6.3)	154 (5.5)	155 (6.2)	155 (2.6)
	충북	농림·어업	89 (-1.1)	93 (4.5)	101 (1.0)	88 (-2.2)	79 (-3.7)	101 (0.0)	89 (-4.3)	97 (3.2)	103 (-4.6)	103 (1.0)
		제조업	190 (4.4)	201 (5.8)	205 (8.5)	209 (10.0)	216 (11.9)	213 (8.7)	219 (12.3)	210 (9.9)	216 (8.0)	213 (8.1)
		SOC·서비스	601 (0.0)	596 (-0.8)	596 (-1.7)	589 (-2.5)	563 (-5.2)	592 (-2.1)	576 (-3.2)	588 (-2.3)	591 (-1.5)	595 (-2.8)
	충남	농림·어업	143 (2.1)	162 (13.3)	179 (9.1)	168 (9.1)	126 (3.3)	197 (9.4)	164 (9.3)	188 (13.3)	201 (6.9)	203 (9.7)
		제조업	270 (0.0)	250 (-7.4)	238 (-9.8)	252 (-5.6)	255 (-2.3)	259 (4.0)	258 (-0.4)	261 (4.0)	262 (7.4)	255 (1.2)
		SOC·서비스	783 (1.8)	764 (-2.4)	790 (1.3)	762 (-2.4)	735 (-1.3)	760 (-0.1)	742 (0.5)	754 (-0.3)	761 (0.4)	766 (-0.3)
수출	대전		4,048 (-10.3)	5,018 (24.0)	1,370 (46.7)	1,366 (28.6)	1,280 (3.3)	1,174 (12.6)	482 (18.7)	371 (16.4)	372 (11.5)	430 (10.4)
	세종		1,285 (4.5)	1,300 (1.2)	333 (-3.8)	372 (4.1)	362 (13.4)	361 (31.1)	130 (20.6)	117 (26.2)	126 (50.1)	118 (19.6)
	충북		22,080 (-5.0)	24,870 (12.6)	6,294 (13.0)	7,134 (27.7)	7,214 (24.1)	6,709 (19.2)	2,715 (23.0)	2,026 (11.2)	2,236 (15.0)	2,446 (31.4)
	충남		79,951 (-13.1)	79,572 (-0.5)	20,215 (-4.0)	22,475 (10.4)	22,046 (12.9)	24,715 (42.4)	8,069 (14.2)	7,653 (45.4)	8,174 (42.4)	8,889 (39.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주력수출품 중 반도체(38.5%), 컴퓨터(28.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5.4%), 석유제품(28.3%)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3) 호남권

● 광주: 생산 증가(18.2%), 고용 감소(-0.7%), 수출 증가(25.2%)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1.9%), 전기장비(65.8%), 기타 기계 및 장비(4.4%) 등 업종의 동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23.5%), 제조업(-5.7%)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전환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2.7%), 반도체(24.1%), 냉장고(47.5%)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 견인

● 전북: 생산 증가(16.1%), 고용 증가(3.5%), 수출 증가(73.3%)
- 자동차 및 트레일러(1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7.2%), 식료품 제조업(1.8%)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6.2%), 제조업(-7.2%)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8.8%) 부문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171.7%), 동제품(120.2%), 자동차(62.1%), 건설광산기계(279.0%) 등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전남: 생산 증가(7.7%), 고용 증가(1.1%), 수출 증가(61.5%)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8%), 1차 금속 제조업(10.4%), 석유정제품(19.5%)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4.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의 증가로 제조업(-9.2%)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62.9%), 합성수지(50.3%), 철강판(233.4%), 기초유분(110.4%)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산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0.4	16.9	1.2	5.6	27.0	-7.2	42.3	14.5	21.9
		전기장비	1.0	8.7	21.9	15.5	27.1	71.0	27.5	57.2	93.7	65.8
		기계 및 장비	8.0	-11.2	-0.7	-6.6	-7.1	22.9	-4.8	26.3	43.7	4.4
	전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4.3	-9.3	-12.8	11.5	6.2	0.4	0.3	7.4	11.8
		화학제품 외	-11.0	-11.1	-5.6	-6.9	-3.2	26.7	5.8	22.6	30.7	27.2
		식료품 제조업	5.6	-0.6	1.3	-5.0	-1.7	-0.2	3.3	-0.9	-1.6	1.8
	전남	화학제품 외	2.2	-2.8	-1.8	-11.7	3.3	13.4	12.6	11.9	13.5	14.8
		1차 금속 제조업	-0.9	-8.1	-4.7	-3.0	3.7	24.1	6.8	24.8	38.1	10.4
		석유정제품	-2.9	-3.7	-8.7	-9.1	0.6	14.6	-9.1	4.5	18.7	19.5
고용	광주	농림·어업	13 (30.0)	16 (23.1)	16 (6.7)	15 (-16.7)	12 (-25.0)	13 (-18.8)	13 (-18.8)	13 (-7.1)	12 (-29.4)	13 (-23.5)
		제조업	110 (-0.9)	107 (-2.7)	107 (-1.8)	105 (-4.5)	103 (-5.5)	100 (-6.5)	100 (-8.3)	100 (-8.3)	101 (-7.3)	99 (-5.7)
		SOC·서비스	626 (-0.2)	625 (-0.2)	626 (0.0)	628 (-0.5)	620 (-0.2)	639 (2.6)	631 (2.8)	637 (3.7)	641 (3.1)	638 (0.6)
	전북	농림·어업	168 (7.0)	179 (6.5)	191 (8.5)	176 (2.3)	160 (1.3)	179 (-5.3)	168 (-4.0)	176 (-4.9)	181 (-4.2)	181 (-6.2)
		제조업	123 (0.0)	123 (0.0)	120 (-2.4)	119 (-3.3)	122 (-3.2)	118 (-6.3)	125 (-2.3)	120 (-4.8)	116 (-7.9)	116 (-7.2)
		SOC·서비스	635 (0.0)	630 (-0.8)	634 (0.0)	650 (1.9)	638 (2.7)	664 (8.3)	653 (8.3)	650 (8.2)	663 (7.8)	679 (8.8)
	전남	농림·어업	191 (-2.6)	205 (7.3)	215 (8.0)	218 (19.8)	205 (14.5)	221 (6.3)	209 (12.4)	215 (8.6)	223 (6.7)	224 (4.2)
		제조업	104 (1.0)	106 (1.9)	112 (12.0)	101 (-3.8)	94 (-10.5)	97 (-10.2)	92 (-9.8)	93 (-13.9)	98 (-9.3)	99 (-9.2)
		SOC·서비스	678 (2.4)	662 (-2.4)	654 (-4.2)	657 (-6.4)	648 (-4.3)	677 (2.4)	669 (-0.4)	673 (2.9)	679 (2.3)	678 (1.8)
수출	광주		13,415 (-8.5)	13,772 (2.7)	3,899 (20.3)	3,820 (17.0)	3,918 (17.7)	4,066 (49.3)	1,436 (9.9)	1,465 (61.5)	1,262 (69.2)	1,338 (25.2)
	전북		6,537 (-16.5)	5,842 (-10.6)	1,477 (-6.2)	1,621 (2.7)	1,758 (18.1)	2,002 (59.5)	720 (34.2)	677 (41.2)	621 (67.8)	704 (73.3)
	전남		32,587 (-11.0)	27,092 (-16.9)	7,155 (-14.9)	7,092 (-10.6)	8,987 (22.3)	10,127 (84.3)	3,219 (31.6)	3,006 (101.2)	3,624 (97.4)	3,496 (61.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4) 대경권

● 대구: 생산 증가(27.9%), 고용 증가(4.0%), 수출 증가(55.0%)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55.6%), 금속가공제품(47.0%), 기타 기계 및 장비(28.2%)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13.8	-9.8	4.2	12.1	57.7	9.8	47.9	72.7	55.6
		금속가공제품	-1.5	-13.4	-22.3	-16.3	-10.5	28.1	-4.1	10.3	33.4	47.0
		기계 및 장비	10.2	-16.9	-11.9	-21.7	0.8	26.9	8.2	23.7	29.2	28.2
	경북	전자부품 외	-7.2	-11.4	-5.3	-23.7	14.1	3.8	-4.7	5.0	9.9	-2.8
		1차 금속	-7.8	-2.8	-4.9	4.2	-1.5	8.3	-3.7	1.8	8.8	1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7.0	0.1	6.4	12.9	34.0	5.2	25.9	45.5	33.0
고용	대구	농림·어업	33 (10.0)	31 (-6.1)	31 (-11.4)	27 (-22.9)	21 (-36.4)	16 (-51.5)	19 (-40.6)	16 (-46.7)	15 (-57.1)	17 (-51.4)
		제조업	249 (-1.6)	231 (-7.2)	227 (-7.3)	231 (-8.0)	236 (0.0)	246 (7.4)	243 (5.2)	248 (8.3)	247 (7.9)	243 (6.6)
		SOC·서비스	936 (-0.6)	923 (-1.4)	942 (-0.4)	948 (1.7)	927 (3.0)	967 (7.3)	950 (10.3)	953 (9.3)	973 (7.4)	975 (5.4)
	경북	농림·어업	251 (6.8)	262 (4.4)	288 (6.7)	283 (16.0)	248 (13.8)	285 (9.2)	257 (10.8)	277 (11.2)	286 (8.7)	294 (8.5)
		제조업	299 (5.3)	292 (-2.3)	287 (-5.0)	277 (-11.8)	278 (-9.2)	277 (-6.7)	280 (-8.8)	277 (-8.9)	280 (-5.1)	273 (-6.5)
		SOC·서비스	879 (-3.0)	863 (-1.8)	865 (-1.1)	862 (-3.1)	830 (-4.7)	854 (0.0)	845 (-0.6)	854 (1.5)	855 (-0.7)	854 (-0.7)
수출	대구		7,491 (-7.6)	6,265 (-16.4)	1,548 (-13.5)	1,775 (-7.8)	1,858 (5.7)	1,954 (65.1)	702 (15.7)	648 (60.8)	636 (82.5)	670 (55.0)
	경북		37,712 (-7.8)	37,096 (-1.6)	9,244 (-4.3)	11,005 (11.3)	10,311 (14.3)	10,320 (31.9)	3,651 (9.4)	3,666 (36.0)	3,307 (37.0)	3,347 (23.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농림·어업(-51.4%)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6.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4%)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10.3%), 정밀화학원료(189.9%), 농기계(47.4%), 플라스틱 제품(98.1%)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경북: 생산 증가(7.6%), 고용 소폭 감소(-0.2%), 수출 증가(23.3%)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8%)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1차금속(15.2%), 자동차 및 트레일러(33.0%)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8.5%)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6.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7%)의 감소로 전년동월비 전체 취업자 수 다소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20.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1.8%), 알루미늄(62.0%) 등은 증가하였으나, 철강판(-3.0%), 반도체(-26.7%)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5) 동남권

● 부산: 생산 유지(0.0%), 고용 증가(2.8%), 수출 증가(68.9%)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1.7%)는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18.2%), 1차금속(1.6%)은 증가
- 제조업(-9.6%)은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71.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9%)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1,239.2%), 철강판(45.3%), 동광(6,011,152.7%), 철강관 및 철강선(36.1%)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울산: 생산 증가(11.3%), 고용 감소(-1.3%), 수출 증가(75.2%)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5.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8%), 석유정제품(4.9%)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 부문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부산	기계 및 장비	6.4	-3.6	-2.2	-23.1	-17.3	-9.1	-3.5	-2.9	-0.1	-2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0	-19.2	-14.6	-26.5	-11.1	14.2	-23.0	-3.2	37.0	18.2
		1차 금속 제조업	-0.2	-7.7	-10.5	-11.3	-9.9	-5.3	-7.0	-8.0	-8.9	1.6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9.8	2.6	-1.2	20.1	25.6	-2.4	16.8	38.2	25.3
		화학제품 외	0.3	-2.8	-6.3	-0.2	2.1	8.6	6.4	9.7	7.6	8.8
		석유정제품	-3.1	-6.1	-9.4	-7.6	-12.4	-3.0	-10.4	-11.2	-1.3	4.9
	경남	기타 운송장비	42.0	-12.9	-19.1	-27.6	-33.9	-25.0	-32.8	-34.7	-18.9	-19.5
		기계 및 장비	-6.9	-9.8	-9.8	-2.0	-1.2	14.5	-1.6	18.5	14.2	10.6
		금속가공제품	-16.0	-1.7	-9.1	-1.8	-6.2	-9.7	-12.8	-8.8	-4.8	-15.0
고용	부산	농림·어업	7 (-30.0)	7 (0.0)	7 (-22.2)	8 (0.0)	8 (0.0)	10 (42.9)	8 (0.0)	8 (14.3)	10 (42.9)	12 (71.4)
		제조업	284 (-0.7)	255 (-10.2)	251 (-11.0)	250 (-5.3)	252 (-3.4)	244 (-5.4)	253 (-3.4)	254 (-0.8)	241 (-6.6)	235 (-9.6)
		SOC·서비스	1,385 (1.8)	1,378 (-0.5)	1,386 (-1.0)	1,391 (-2.2)	1,358 (-1.8)	1,417 (4.9)	1,382 (0.6)	1,396 (4.3)	1,421 (5.6)	1,434 (4.9)
	울산	농림·어업	6 (0.0)	7 (16.7)	7 (0.0)	7 (0.0)	6 (-14.3)	6 (-14.3)	6 (0.0)	5 (-28.6)	7 (0.0)	7 (0.0)
		제조업	176 (-4.9)	162 (-8.0)	159 (-10.2)	160 (-5.9)	166 (-1.2)	162 (1.3)	167 (-0.6)	166 (2.5)	163 (2.5)	158 (0.0)
		SOC·서비스	389 (1.6)	392 (0.8)	397 (1.0)	392 (-2.0)	377 (-3.3)	384 (-1.3)	383 (0.3)	382 (-0.3)	384 (-1.8)	385 (-1.8)
	경남	농림·어업	178 (-2.7)	184 (3.4)	188 (1.6)	181 (0.6)	173 (-1.7)	207 (8.4)	187 (0.5)	196 (5.9)	204 (9.1)	220 (8.9)
		제조업	396 (-5.3)	399 (0.8)	398 (1.3)	382 (-5.7)	381 (-7.1)	380 (-6.6)	378 (-7.1)	379 (-6.9)	378 (-7.4)	384 (-5.4)
		SOC·서비스	1,173 (2.5)	1,145 (-2.4)	1,153 (-1.8)	1,159 (-1.4)	1,128 (-1.1)	1,175 (4.3)	1,148 (2.2)	1,173 (4.8)	1,184 (5.0)	1,168 (2.9)
수출	부산		13,924 (-3.4)	11,320 (-18.7)	2,775 (-18.9)	3,028 (-16.2)	3,327 (8.7)	3,917 (59.5)	1,175 (6.3)	1,304 (43.6)	1,253 (68.9)	1,360 (68.9)
	울산		69,530 (-0.9)	56,091 (-19.3)	14,027 (-17.0)	15,083 (-13.1)	16,520 (5.4)	18,732 (65.7)	6,514 (20.7)	6,248 (50.8)	5,873 (73.4)	6,611 (75.2)
	경남		39,353 (-2.2)	35,893 (-8.8)	7,830 (-18.8)	10,139 (7.6)	10,792 (5.6)	9,261 (20.1)	3,661 (24.9)	2,806 (29.4)	2,931 (14.2)	3,524 (18.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55.0%), 석유제품(116.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82.3%), 합성수지(107.5%) 등 품목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경남: 생산 증가(7.7%), 고용 증가(1.7%), 수출 증가(18.5%)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19.5%), 금속가공제품(-15.0%)이 감소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10.6%) 등은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폭 축소
- 제조업(-5.4%)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림·어업(8.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에서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5.2%)이 증가 전환하였고, 자동차부품(46.2%), 레일 및 철구조물(184.0%), 원동기 및 펌프(28.2%)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6) 강원·제주권

● 강원: 생산 증가(5.5%), 고용 증가(2.7%), 수출 증가(25.6%)
- 대표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1.7%) 등의 생산 증가가 지속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22.3%)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7.0%)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 중 자동차부품(201.6%), 농약 및 의약품(39.3%)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응용기기(-5.7%), 농산가공품(-10.4%) 등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 제주: 생산 증가(9.5%), 고용 증가(4.6%), 수출 증가(101.5%)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6.6%), 식료품 제조업(-6.3%)은 감소하였으나, 비금속 광물제품(24.4%)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5.6%)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36.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3%)에서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153.9%)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어류(13.2%), 기호식품(61.3%) 등이 동반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산	강원	비금속 광물제품	-4.7	-4.6	-7.2	-2.4	-4.2	-4.8	-5.9	-9.9	-0.1	-4.2
		식료품	5.1	-2.0	2.7	3.6	2.3	0.3	3.0	0.2	-0.9	1.7
		음료	7.9	-4.2	-4.9	-14.9	-5.6	-12.1	7.2	-18.4	-9.7	-7.9
	제주	음료	5.4	-0.7	-2.9	33.2	23.4	-12.6	-1.1	-12.8	-18.1	-6.6
		식료품	-6.3	-2.5	-4.6	-5.8	-15.1	-2.0	-35.8	-1.8	2.7	-6.3
		비금속 광물제품	-12.8	-28.8	1.5	-17.0	-6.8	65.7	18.5	52.0	197.5	24.4
고용	강원	농림·어업	92 (5.7)	82 (-10.9)	96 (-15.8)	67 (-25.6)	46 (-27.0)	75 (-27.2)	61 (-33.0)	70 (-31.4)	76 (-26.9)	80 (-22.3)
		제조업	56 (7.7)	57 (1.8)	55 (-5.2)	54 (-10.0)	55 (-11.3)	54 (-3.6)	56 (-9.7)	54 (-6.9)	52 (-3.7)	55 (0.0)
		SOC·서비스	658 (2.3)	649 (-1.4)	659 (-1.6)	658 (0.3)	636 (0.5)	697 (7.6)	680 (6.8)	687 (8.4)	701 (7.2)	702 (7.0)
	제주	농림·어업	67 (13.6)	74 (10.4)	73 (9.0)	75 (5.6)	71 (-4.1)	68 (-9.3)	71 (-4.1)	69 (-9.2)	68 (-12.8)	68 (-5.6)
		제조업	12 (0.0)	12 (0.0)	12 (-7.7)	14 (16.7)	13 (8.3)	14 (27.3)	12 (0.0)	13 (18.2)	13 (8.3)	15 (36.4)
		SOC·서비스	303 (0.7)	292 (-3.6)	293 (-2.7)	295 (-3.6)	292 (-0.7)	306 (7.7)	300 (6.0)	308 (9.2)	306 (8.1)	304 (6.3)
수출	강원		2,088 (-0.4)	2,023 (-3.1)	516 (-0.6)	592 (11.0)	631 (34.7)	658 (47.5)	237 (37.5)	230 (49.8)	222 (72.9)	206 (25.6)
	제주		149 (-18.3)	155 (4.0)	32 (-8.8)	54 (13.4)	45 (16.9)	59 (92.7)	19 (46.2)	20 (81.9)	19 (95.3)	21 (101.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V

산업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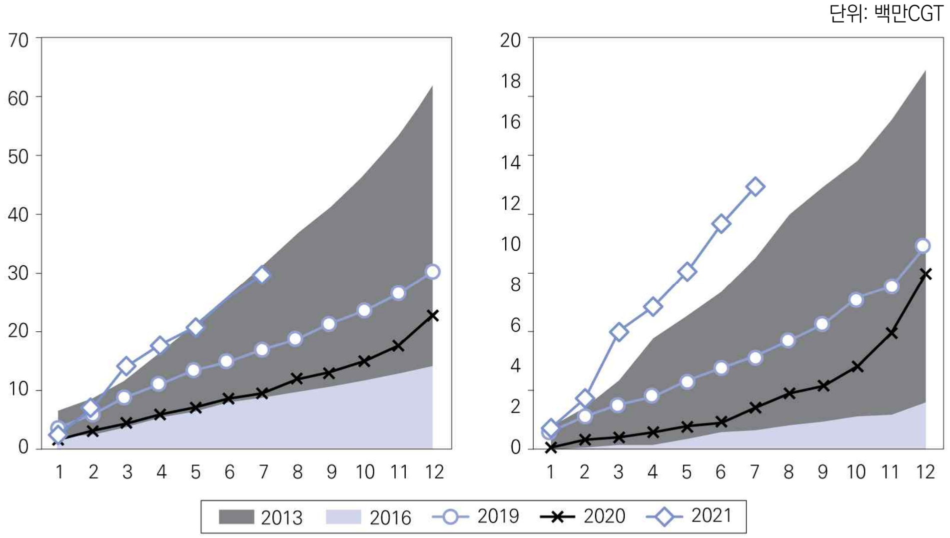
01 원자재인 후판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1) 조선산업, 수주 회복에도 대규모 영업적자 기록

- 수주 급증으로 시황 회복을 기대하던 조선산업은 2021년 2분기에만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 2020년 코로나19로 2016년 수주절벽 시기와 유사한 수주를 경험한 조선산업은 2020년 4/4분기 이후 수주가 회복됐고, 2021년 상반기에는 호황기에 가까운 수주를 기록
    -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는 가스운반선 및 가스연료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10년 내 가장 많은 수주로 시황 회복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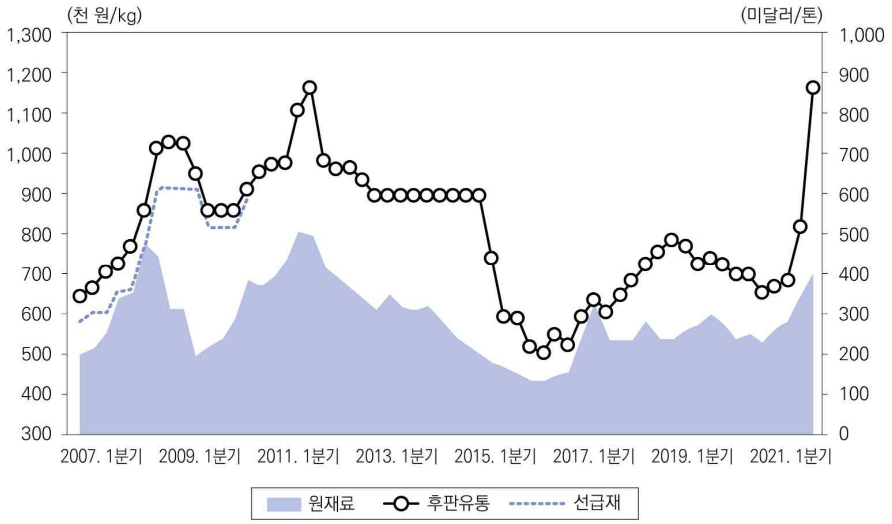
- 하지만 하반기 철강가격이 상반기 대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손실을 미리 반영하면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
  - 2020년에 톤당 60만 원대의 후판가격이 2021년 상반기에 70만 원대로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는 115만 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알려짐.
    - 조선사와 철강사는 분기나 반기별로 가격을 협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유통향 철강가격이 폭등하여, 하반기 가격협상에서 조선용 후판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후판가격 상승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실적에 반영하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은 8,298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1조 2,203억 원, 삼성중공업은 9,44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세계(좌)와 우리나라(우)의 월별누적 조선 수주량 추이



자료: 클락슨리서치 SIN DB(검색일: 2021.8.11)를 기반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2007년 이후 분기별 후판가격(좌) 및 원재료(우)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자원정보서비스, Steeldaily 등을 이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원재료는 철광석*1.6+원료탄*0.7로 추정한 값이며 미달러/톤임.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손실을 미리 반영하여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쌓아야 함.

(2) 전후방산업으로서의 철강과 조선

□ 조선은 대규모 철강 수요처

● 조선산업은 철강 다소비 산업으로 선종별로 강재는 선가의 10~20%를 차지(후판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전 기준)하며 주요 기자재도 철강으로 제작

- 우리나라 조선사가 주로 생산하는 초대형 유조선(VLCC)은 선가의 20%, LNG운반선은 10% 내외가 강재 가격이며, 후판 외에도 보강재용 형강, 파이프용 강관, 엔진·추진장치·의장품 등에 다양한 주단조품도 사용
- 또한 조선산업은 국내 철강사가 출하하는 후판의 41%를 구매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후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중후판 출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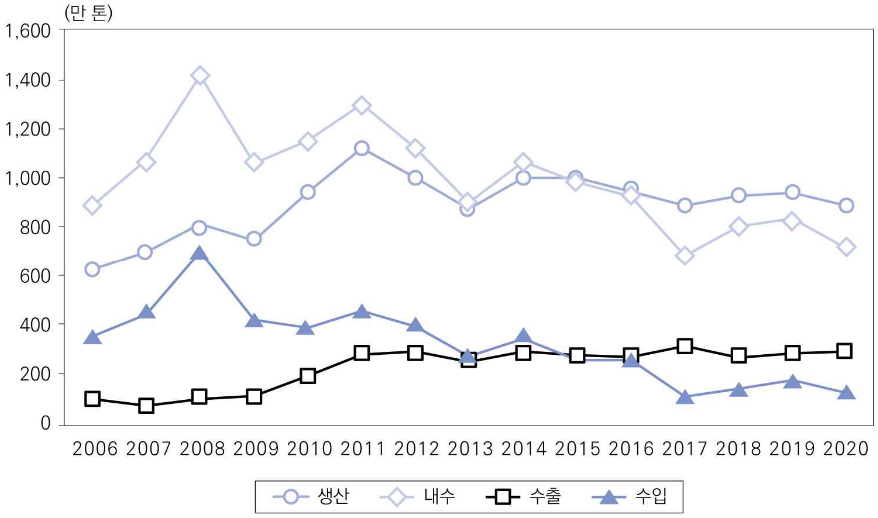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선	57.8	41.8	43.6	38.9	41.1	41.8	42.3	32.1	41.1	41.1
유통	7.7	18.7	16.9	17.1	19.9	18.7	20.1	20.7	18.4	17.7
수출	15.6	24.0	24.6	29.9	24.1	24.0	23.4	31.0	22.2	25.1
건설	5.3	9.6	6.1	5.9	4.8	9.6	8.5	4.8	6.8	6.7
기타	13.5	6.0	8.8	8.2	10.2	6.0	5.7	11.4	11.5	9.4

자료: 한국철강협회(2020. 7), 2019년 철강재 출하구조 보고서.
주: 수치는 중후판 출하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

□ 후판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의 시기도 경험

● 2008년 조선산업 초호황기에는 후판 수요가 급등하면서 조선사가 후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주요 철강사는 설비를 확대

국내 철강사 생산, 내수, 수출 및 국내 후판 수입 추이



자료: 한국철강협회.
주: 내수는 생산+수입-수출.

- 2008년 포스코 530만 톤, 동국제강 280만 톤이었던 후판 생산능력은 현대제철의 시장 진입, 포스코 광양공장, 동국의 당진공장 등 증설로 2011년에 1,360만 톤 규모로 확대

●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후판의 유입과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조선과 철강산업의 동반 구조조정도 발생

- 해양플랜트 손실과 2016년 수주절벽으로 대형조선사도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후판시장의 급감으로 동국제강은 포항 1, 2공장을 폐쇄

□ 중국 생산 감소와 국내 조선사의 수요 증가로 다시 후판 공급 부족

●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가격 급등의 핵심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중국의 철강생산 감소에 기인

-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철강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철강생산을 줄이려고 노력하여 수출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

- 수출 장려를 위해 시행하던 증치세 환급을 없애고 수출세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중국산 수입 강재의 가격 경쟁력 상실

● 한편 저가의 중국 후판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예상보다 많은 조선사의 수주로 인해 후판 수요도 단기적으로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

- 2020년 4/4분기부터 조선사가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예상보다 후판 수요가 급증했는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쉽지 않은 상황

(3) 철강-조선의 상생 노력이 필요

● 한·중·일 3국 간 경쟁이 치열한 철강과 조선은 한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나머지 산업에도 큰 피해가 가는 구조

- 2008년 이후 중소 조선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형·중소 조선사 시장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감으로써 국내 후판시장의 축소 가속화
- 현재 조선산업은 중국의 국영 조선사와 국내 조선사 간의 경쟁으로 국내 조선사가 경쟁력을 잃으면, 그 시장은 모두 중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큼.

● 내수시장이 중요한 철강과,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의 시너지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함께 확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생전략이 다시 필요

- 창업기부터 함께 시작한 철강과 조선산업은 상호 시너지를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
  - 후판 공급 부족기에 포스코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양질의 후판을 공급했고, 고급강의 국산화를 비롯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용 극후물 강재나 극저온용 고망간강과 같은 강재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공급
-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조선산업은 조선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철강 수요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대를 동시에 모색하는 미래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협력이 긴요

이은창 |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02 미·중 통상마찰이 국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 문제 제기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간 통상마찰이 2019년 5월 미국이 중국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최고 25%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욱 심화
  -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적어도 중기적으로 섬유소재와 의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제품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중 간 통상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이처럼 미·중 간 통상마찰은 한편으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대미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 중국의 대미 의류 및 섬유제품 수출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이에 미·중 간 통상마찰 이후 미국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을 살펴본 다음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수출국들의 미국 섬유시장 점유율 변화

□ 중국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 크게 감소

- 미·중 간 통상마찰로 인해 중국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
  - 우선 미·중 간 통상마찰이 심화된 2019년 중국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감소
    -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2018년 35.2%에서 2019년 32.3%로 2.9%포인트 하락

주요국의 미국 섬유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0. 6	2021. 6
중국	35.51	35.23	32.28 (30.71)	37.96 (28.38)	37.27 (25.52)	26.71 (23.82)
한국	1.07	1.09	1.14 (1.12)	1.11 (1.15)	1.20 (1.30)	1.25 (1.18)
베트남	10.80	10.99	12.18 (12.82)	12.54 (14.60)	12.50 (15.04)	13.42 (14.30)
캄보디아	2.00	2.16	2.42 (2.56)	2.74 (3.33)	2.68 (3.36)	2.96 (3.13)
멕시코	4.96	4.70	4.47 (4.22)	3.96 (4.04)	4.05 (4.19)	4.59 (4.31)
온두라스	2.36	2.36	2.56 (2.71)	1.85 (2.18)	1.60 (1.92)	2.41 (2.62)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
주: 1) ( ) 안은 부직포, 마스크를 제외한 수치.
2) 각국의 수출 통계는 미국의 수입통계를 기초로 작성.

- 2020년에는 대미 수출이 426억 달러로, 코로나19 발생에 힘입은 마스크 및 마스크용 부직포의 대미 수출 급증으로 14.4% 증가하였지만, 마스크와 부직포를 제외하면 22.9%의 매우 큰 폭 감소
  -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마스크와 부직포를 제외하면 2019년 30.7%에서 2020년 28.4%로 2.3%포인트 하락
- 올해 상반기에도 21.8%의 큰 폭 감소로 인해 미국시장 점유율이 26.7%로 전년동기보다 10.6%포인트나 하락
  - 마스크와 부직포를 제외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25.5%에서 23.8%로 하락
- 특히, 의류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8.4% 및 26.5%의 큰 폭 감소로 인해 미국시장 점유율이 2018년 33.0%에서 2019년에 30.0%로 하락한 데 이어 2020년에 27.2%로 지속 하락
  -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의 지나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9.0% 증가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미국시장 점유율이 22.0%로 전년동기보다 2.6%포인트 하락

□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미·중 간 통상마찰의 반사이익 실현

●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제에 힘입어 미국시장 점유율이 지속 상승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은 2019년에 13억 1,303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
  - 이에 따라 미국시장 점유율은 2018년 1.09%에서 2019년 1.14%로 0.05%포인트 상승
- 2020년에는 12억 4,387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고 특히, 마스크와 부직포를 제외하면 미국 전체 16.5% 감소에 비해 소폭 낮은 14.9% 감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마스크와 부직포를 제외하면 2019년 1.12%에서 2020년 1.15%로 소폭이나마 상승
- 올해 상반기에도 14.1% 증가에 힘입어 미국시장 점유율이 1.25%로 전년동기비 0.05%포인트 상승
  - 마스크와 부직포를 제외하면 미국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에 마스크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아세안 지역 국가들도 반사이익 실현

● 중국과 의류 및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도 미·중 간 통상마찰의 반사이익 실현

- 베트남과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은 2019년에 각각 11.2% 및 12.6% 증가
  - 이에 따라 미국시장 점유율이 2018년 각각 10.99% 및 2.16%에서 2019년 12.18% 및 2.42%로 각각 2.18%포인트 및 0.26%포인트 상승
- 2020년에는 마스크와 부직포를 제외하면 0.2% 및 10.0% 증가하여 미국시장 점유율이 각각 12.54% 및 2.75%로 전년 대비 각각 0.38%포인트 및 0.32%포인트 상승
- 단지, 올해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심화의 영향으로 생산활동 및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크게 감소

(3)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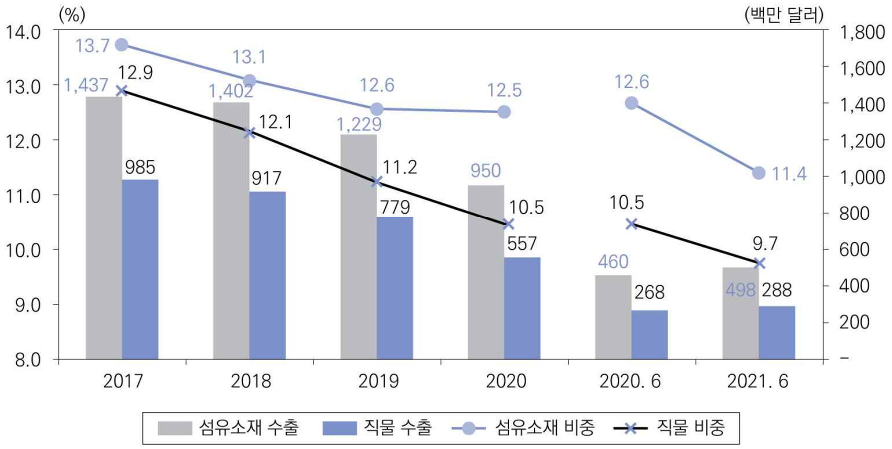
□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도 크게 감소

● 미·중 간 통상마찰로 중국의 대미 의류 수출이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도 크게 감소

-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 규모는 2020년 현재 9억 5,037만 달러로, 2019년 12.3%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22.7%의 큰 폭 감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섬유소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2018년 13.1%에서 2019년 12.6%로 하락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2.5%로 더욱 하락
-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의 지나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8.3% 증가하였지만, 이는 섬유소재 전체 수출증가율 2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년 상반기 12.6%에서 올해 상반기에 11.4%로 1.2%포인트 하락

● 특히, 주력 수출 분야인 직물이 2019년 15.0%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28.5%의 큰 폭 감소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소재 및 직물 수출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비중은 우리나라 섬유소재(직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직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2018년 12.1%에서 2019년 11.2%로 하락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0.5%로 더욱 하락
- 올해 상반기에는 7.4%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그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9.7%로 전년동기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준

□ 중국시장 점유율도 하락세 지속

● 특히, 우리나라 섬유소재산업은 중국시장에서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 의한 중저가품 시장 잠식 등으로 중국시장 점유율이 하락세 지속
- 우리나라 섬유소재산업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16년 9.8%에서 2020년 8.1%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5월 기간에도 6.6%로 전년동기보다 1.6%포인트 하락
- 특히, 주력 수출 분야인 직물의 중국시장 점유율도 2016년 15.5%에서 2020년 12.0%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5월 기간에도 11.5%로 전년동기보다 0.6%포인트 하락

한 · 미 FTA에 따른 섬유산업의 관세양허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즉시 폐지 (2012)	3년 이내 (2015)	5년 이내 (2017)	10년 이내 (2022)	전 체
미국	품목 수	1,387(86.8)	0(0.0)	149(9.3)	62(3.9)	1,598(100.0)
	수입액	1,654(61.2)	0(0.0)	504(18.6)	548(20.2)	2,706(100.0)
한국	품목 수	1,265(97.6)	7(0.5)	24(1.9)	0(0.0)	1,296(100.0)
	수입액	170(72.0)	32(13.4)	34(14.6)	0(0.0)	236(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0), 한 · 미 FT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
주: 1) 품목 수 및 수입액은 2003~2005년 기간의 평균 금액.
2)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단계별 비중.

(4) 정책과제

● 미국은 우리나라와 경쟁관계가 높은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섬유 수입관세를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므로, 대미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및 대미 수출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및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 차별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염색·가공, 즉 고감성 염색 및 사가공 기술과 복합기능성 및 신기능성 가공 기술개발 강화
  - 미국은 산업용 섬유 중심의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고성능 자동차용 섬유, 고성능·복합기능성 부직포 등 첨단산업용 섬유 개발 및 수출 주력산업화
-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인 Yarn Forward 기준 충족을 통해 한·미 FTA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스트림 간 연계 및 상호 협력 강화
  - 국내 섬유산업은 업스트림(화학섬유/방적사) - 미들스트림(직물/염색·가공) - 다운스트림(의류/섬유제품)으로 이어지는 모든 공급가치사슬(Value-Chain)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 있으므로,
  - 균형 있는 스트림 간 산업구조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트림 간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

● 중국은 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해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에 내수시장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상하이, 베이징, 장쑤성, 저장성처럼 소득과 소비수준이 높은 지역은 패션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중·서부지역이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과 함께 소비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 중국의 내륙지역 육성정책에 힘입어 정저우(허난성), 우한(후베이성), 난창(장시성), 스

자쟝(허베이성), 허페이(안후이성), 청두(쓰촨성) 등 중·서부 지역은 새로운 의류 생산 집적지로 부상하면서 섬유소재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유소재 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

· 특히, 중국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우한(후베이성),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청두(쓰촨성) 등에 대한민국 상설 섬유 전시·판매장 개설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판매 기능 강화

- 또한 장쑤성, 저장성과 같은 동부지역은 패션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기능성·감성 섬유소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복합 기능성·신기능성 섬유소재, 고성능 산업용 섬유소재, 텍스타일디자인 직물 등 다양한 차별화·신기능성 섬유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 필요

박 훈 | 소재산업실 연구위원